

/ 건강한 삶, 행복한 일터 만들기 /

마음나래 프로그램



상담신청 바로가기



신청 및 문의. **1661-1508**



마음나래 웹사이트
<http://maumnarae.co.kr>



카카오톡에서 교정 마음나래 친구추가 하세요.



직무 스트레스
& 심리적 탈진
전문치유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기간 및 대상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교정공무원 (필요시 배우자, 부모, 자녀와 함께 이용 가능)

프로그램 안내

/ 전문심리상담(대면) /

- ▶ 횟수 : 1인당 연간 12회기 지원(필요 시 4회기 추가)
- ▶ 주제 :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부부/자녀상담, 법률/세무/재무상담 등
- ▶ 상담 방법 : 대면, 전화, 화상, 채팅, 메타버스 상담

/ 전문심리상담(위급상황) /

- ▶ (24시간 핫라인 운영) 실시간 위급 전화 상담 운영

●● 24 24시간 위기전화상담. **02-2138-0900**

/ 긴급심리지원(마음케어) /

- ▶ 사망(자살 목격, 병사), 폭행피해 등 교정사고와 충격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전담팀의 단계별 개입



/ 정신과 진료비 지원 /

-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지원(본인에 한해 실비지원)

/ 찾아가는 심신케어 /

- ▶ 전국 교정기관 실시(대형기관 4일, 그 외 기관 3일 진행)
 -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 피지컬케어, 건강상담, 마음건강 관련 특강
 - 커피차 및 이벤트 등 힐링부스 운영

/ 심리진단 /

- ▶ 마음나래 웹사이트 접속 후 심리검사 및 각종 심리진단 가능
 - CSQ(통합직무스트레스검사), ASR(성인 정서 행동 평가), ICL(불면증 자가진단 검사), PAT(심리적용검사), 패밀리케어 심리검사 등



ISSN 2671-4304

교정

vol.585.
2025. February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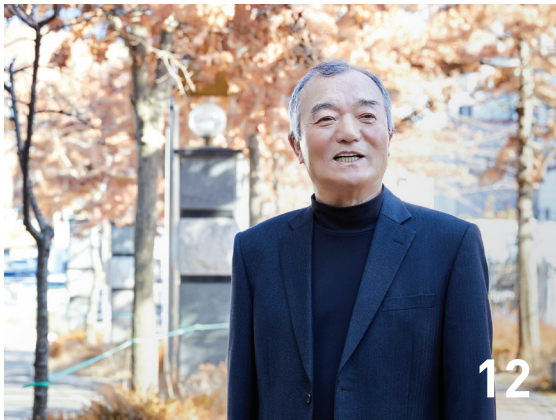
T
o
g
e
t
h
e
r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85_2025. February



12



16



80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약속과 의무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삶의 정원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12 우리는 한마음

경험과 단결로 이어가는 교정공무원의 긍지
인터뷰 | 조천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구지부 회장

교정 이야기

16 교정과 사람들

한국 교정의 미래 위한 20년 만의 도전:
APCCA 2025 준비 착착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APCCA 준비기획단

교정 아카이브

22 교정 포커스

제42차 홍콩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참가기(상)
이선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36 교정 논문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타당화 연구(하)
정여경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감

52 교정 리포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이정숙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

교정 뉴스

80 교정본부 NEWS

82 교정기관 NEWS

89 모범 공무원

90 독자마당



COVER STORY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변화는 더욱 의미 있고 강한 힘을 갖습니다. 교정 현장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도 동료와 손을 맞잡고, 수용자와 소통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합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동행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2월 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과 의무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약속이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마음의 계약이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약속이란 언제나 결과 속의 표적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상대방 없는 스스로와의 다짐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욱 따뜻하게 아우르는 약속의 토대가 되어 주기도 하지요. 한편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의무란 것도 어차피 법적 약속으로 치부되는 것일 터, 짐작컨대 약속이든 의무든 간에 지켜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니, 두 단어가 모두 동일한 결단의 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이란 마음의 출발이라 일컫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출발은 언제나 반짝이는 이마와 설레는 가슴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그 반짝임과 설레임의 행로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피트 하밀의 ‘노란 손수건’처럼 결말의 격한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데워주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서슴없이 그 설레임에 때를 묻혀 상처가 되고마는 아픈 약속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말이 약속이 되고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그리하여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존중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중학교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전교생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크게 광고하였는데, 1등부터 15등까지 시상한다고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 왈 “우리 반에서 15등 이내 입상자는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은 물론 맛있는 요리를 사 줄테니 부디 입상하여 우리 반의 기상을 드높이도록 해라”하였으니, 그 말을 들은 6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박수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박수는 입상하고 말겠다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의 의지와 각오들이 가득 담긴 탓인지 교실이 떠나갈 듯 우렁차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개교기념일이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들 삼총사도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원래는 육상에 소질이 꽤나 있었던 친구 한 명과 나 둘이서만 짝을 이루어 달리려 했는데, 갑작스런 친구 한 명의 부락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삼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였으나 웬지 몸이 유약해 보이던 같은 반의 친구가 난데없이 다가와 말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좀 뛰어 줄 수 없겠니? 나대로는 훈련을 많이 했다. 꼭 입상하여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흠어머니와 함께 사는 줄은 알았지만 알듯 모를듯한 얘기를 위낙 진지하게 하는 터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엉겁결에 손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우리는 쏜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정말 훈련을 많이 한 탓인지, 동반을 부탁했던 그 친구는 반환점을 돌아올 때까지도 선두 그룹을 형성한 우리의 뒤를 처지지 않고 잘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피니시 라인이 있는 학교 정문을 불과 1km 정도 앞두고서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둘이서 그 유약한 친구의 등을 밀며 역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둘씩 우리를 추월해 가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초조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었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아예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이윽고 끝인 지점 인근에 도착, 우리 셋은 각자 마지막 힘을 다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했는데 아뵘새! 반칙 행위로 지적당할까봐 그 친구의 손을 놓고 달린 찰나의 순간에 다른 학생 한 명이 그 친구를 앞지르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위가 15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래의 멤버였던 친구와 내가 13등, 14등을 차지했고 나중에 합류했던 그 친구는 애석하게도 16등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속이 상해 눈물을 글썽이는 그 친구를 붙잡고 위로하자, 그 친구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입상 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다며 오히려 미안해하는지라 더욱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속이 상했던 것은, 약속을 호언장담했던 담임 선생님의 이상한 태도였습니다. 짜장면은 고사하고, 한 반에 두 명이나 입상하였음에도 따뜻한 격려나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던 학생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이 송두리째 무시당한 그 경험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약속이 그렇듯 가벼운 것이라면,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기던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 쉽게 엿보이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었습니다. 틈틈이 망각의 커튼을 열고 돌아보노라면, 어릴 적 손 잡았던 약속과 우정의 너울들이 다행히도 그 시절 선생님의 허언을 가려주니, 그나마 따뜻함을 머금고 그때의 마음들을 품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정녕 약속이 답이 될 수 없고, 의무라는 게 책임의 옷을 내던지고서도 감히 명명되는 허장성세의 실상을 교도관이 되고서는 실감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과 의무의 확행을 시대의 척후병처럼
앞세우고, 갇힌 세상을 밝혀가는 뜨거운 사명감을
‘불꽃의 도화선’처럼 분출하며
존재해야 할 것



비록 그 시절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키높이를 같이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선 교정시설로 배명을 받았을 때의 행형현장이 주는 배반감은 실로 컸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체득한 각오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라 이름하는 조직의 강렬한 현장성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마냥 흐트러져 있는 행형의 매무새가 적지 아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교정시설이라 함은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약속, 즉 책임과 의무의 확행을 시대의 척후병처럼 앞세우고, 갇힌 세상을 밝혀가는 뜨거운 사명감을 ‘불꽃의 도화선’처럼 분출하며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배웠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한낱 쓰레기와 수초가 뒤엉킨 강바닥처럼, 달리 돌 때를 찾지 못해 버려진 듯한 군상들로 법석거리는 감방들은 다만 상실과 허무의 냄새들로 코를 찔러올 따름이었습니다. 온통 곰팡내 나는 영혼들의 소란과 비명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편린들을 이기지 못해 급기야는 감독하는 교도관에 대한 가시 돌친 배반의 언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속칭 가다밥(등 급별 도구로 찍어낸 밥), 신입식 등으로 대변되는 남루하고 악습적인 교정시설의 일상성마저 감수하기에 이르러서는, 교정처우라는 말은 언감생심 입에 올려서도 아니 될 듯 싶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행형의 그 어두운 물결들에 마음이 무너져 그냥 돌아서고도 싶었습니다. 실제 일찌감치 손 털고 돌아가 버린 동기생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쥐었던 약속과 의무를 미련 없이 던지고 돌아서 가는 동료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외로운 늑대로 가득찬 세계

에서 양으로 보이면 곤란을 겪게 된다’던 프리드먼의 말이 문득 떠올라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당장에 손이 닿고 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선별, 집중하여 행형제도의 올바른 기틀을 하나둘씩 하루바삐 갖추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산한 삶의 비애가 뺏속까지 스며든 수형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수용생활의 실천으로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앞날의 예감에 가슴 두근거릴 약속 하나쯤은 스스로 저장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입으로 교정을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개 교위 한 명이 오륙십명의 직원을 지휘하여 교도소의 긴 밤을 온통 짊어져야 하는 직무의 행태 또한 보람이기는 커녕, 열등감의 힘든 동통으로 다가설 뿐이었습니다. 좌절과 수치의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선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격언 하나를 마음의 위안으로 곱씹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많이 흐른 세월과 더불어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역할을 놓지 아니한 훌륭한 선배·동료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어, 오늘날 우리의 교정시스템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전벽해라고나 할까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일부 문제수형자들의 행태는 아직껏 여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가끔씩 건디기 힘든 모멸감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하지요. 때로 그런 부류까지도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 이유는 무엇인지 싶어 무거운 회의감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그리고 기실 그 모두를 끌어안고 가는 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오늘날의 행형체계가 오랜 세월 지나치게 법집행을 위한 편의 위주로 다듬어진 까닭에, 작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재소자들의 평범한 바람들을 혹여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뜨거운 위로가 되고 설득의 언어가 되는지, 진중하게 돌아보고 또 숙고해 보아야 할 일이지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직업도 사랑도 자기 삶의 모든 매듭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약속과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그러므로 더러 우리의 선택이 무겁고 두려워도 결코 고개를 떨구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을 신고 오가는 열차를 향해 눈비 속에서도 깃발을 흔드는 철도원처럼 깨끗하게 서서, 우리 교정의 향방과 건널목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절망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약속이 되고, 우리의 의무로 화투불처럼 누군가를 데워주는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과 질시로 가득한 세상이 그나마 살 만한 것도, 우리 교도관처럼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 그 세상을 함께 하기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하얀 눈과 얼음만으로 펼쳐진 이 겨울의 햇살같은.

삶의 _____ 정원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얼마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통에 몇 번을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를 인간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잊지 못하고 꼭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나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편이라, 첫마디에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출소후 고향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만날 약속을 정해달라며 몇 번의 연락에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였는데, 올해가 가기전에 꼭 한번 그가 살고 있는 강릉을 방문하겠다고 그와 약속하였다.

20여년 전 강릉 교도소에 근무할 때, 그는 지역에서 여러 사건들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고 그 때마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항상 분노에 찬 얼굴과 눈빛으로 사사건건 직원들과 부딪치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나름의 믿음과 자신이 있어 상담 담당자를 자처하여, 시간이 날 때면 그를 찾았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나를 찾아 스스로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츰 마음을 열어갔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근무자들과 마찰이 줄고, 수용생활에 적응한 것이 그때쯤이 아닌가 싶다.

이전 여러 기관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수용자들과 상담을 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수용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멀리한 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이나 절도 등 범죄행위로 이어져 학교를 중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각종 범죄로 결국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교도소에 와서도 반성과 순응을 하기는 커녕 저항적이고 반항적 태도로 일관하며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해서도 큰 범죄를 저지르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범죄자들을 수용,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으로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정행정의 목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와 대면하면서 감정고시나 대학교육등 학과교육에 애쓰기도 하였고, 특히 종교활동을 담당하면서 나를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여 다시는 교도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삶이란 절대로 누군가 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소중히 가꾸고 살피려 노력해야 한다.
한 송이 꽃이 차디찬 겨울을 견디어 낸 끝에 꽃망울을 터뜨리듯 인생의 밤을 견뎌내야 한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애(愛)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수용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진심어린 마음과 따뜻한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근무기간 동안 그 믿음으로 수용자들을 마주하였고, 현재까지 사회에 복귀한 많은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거나 종교인으로 거듭나 연락을 이어오는 것이 그 증거이지 않을까 싶다.

올해 1월 영월교도소에 부임하면서 수용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줄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한 결과 “삶이란 자신만이 가꿀 수 있는 정원이다”라는 주제로 매월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삶이란 절대로 누군가 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소중히 가꾸고 살피려 노력해야 한다. 한 송이 꽃이 차디찬 겨울을 견디어 낸 끝에 꽃망울을 터뜨리듯 인생의 밤을 견뎌내야 한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애(愛)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이곳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누구나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 자명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정성을 다해 충실히 생활하면 출소 후에 분명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 치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은 군인, 경찰, 소방, 교도관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교도관’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은 교도소가 흉악한 범죄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과거 일제 강점기나 권위주의 시대 때의 나쁜 이미지와 더욱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현실적인 허구의 장면에 투영된 이미지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 친화적인 새로운 건축양식의 교도소 건물과 주민들에 대한 시설 개방과 교류, 무엇보다 17,000명의 수준 높은 교정 공무원의 인적 자원의 전문적인 역할로 출소 후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수용자들에게 그들이 각자의 “삶의 정원”을 잘 가꾸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교정의 날’을 기념하면서 국민들의 교정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경험과 단결로 이어가는 교정공무원의 긍지

조천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구지부 회장



INTERVIEW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인생의 시간 또한 ‘앞에서 뒤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시간은 갖가지 사연을 만나 그 마음에 ‘결’을 짓고, 그 결을 따라 진심과 성심으로 스스로를 다듬어 온 사람이라면 비로소 고유한 ‘격’을 갖출 수 있다. 자택에서 만나 본 조천해 회장(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구지부, 이하 대구지부)은 그런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했다.

글_서선미 사진_조인기

삶의 두 가지 방향, ‘수평’과 ‘수직’: 교정인으로서의 여정

‘결’이 방향성이라면 ‘격’은 높낮이다. 한 방향으로 올곧게 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삶의 무수한 문제들을 소화하고 다스리며 ‘더 나은’ 모습을 찾아가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직립보행의 인간 존재에 있어 ‘높음’이란 낮게 침잠하는 시간들을 버티며 먼저 ‘깊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정인으로서 33년 하고도 10개월을 살아온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말 현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책상 위로 수북이 쌓인 교정誌는 교정과 의 진한 인연이 그 삶에 깊이 베어 아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시간이 남긴 경험과 교훈들은 현재의 그를 정의하는 듯했으며, 그에 대한 꾸준한 기록은 그 삶에 깊이와 높이를 더하는 듯했다.

“1975년 4월 4일 병영 111기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1981년 교사로 승진했어요. 그로부터 8년 후 교정간부로 임관해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았죠. 청송 1·2감호소를 시작으로 경주·김천·청주·안동 등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근무했던 약 10년간은 정말 열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2010년부터 동우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조 회장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퇴직 후인 지금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의 결을 따라

기존의 자부심과 긍지는 이전보다 커졌고, 그가 쌓아온 경험과 삶의 격은 이제 ‘보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아파트 단지 내를 걸을 때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표정과 미소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 정말 교정직이란 게 참 고된 직업군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주변 분들이 저를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솔선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죠. 몸에 베어 있는 그 이미지와 그러한 평가가 저에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정 공무원의 자부심과 연대, 대구지부의 발전과 미래

2023년 대구지부 회장으로 취임한 조 회장은 퇴직 이래 지금까지 교정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이 이끄는 현재 대구지부에는 약 250명의 회원 가운데 5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대해 조 회장은 “현충일, 대구교도소 개청식은 물론 지역사회 내 주요 행사에서 활약한다”면서 “그렇다 보니 대구 지역 교정공무원의 존재감이 좀 남다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지부의 활동이 바로 교정공무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부는 경산·달성·성주·영천·청도 지역이 연계돼 있어요.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퇴직 후 마라톤에 도전한 것도 그 일환이었죠. 물론 ‘건강 관리’의 효과가 있었지만 교정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어요.”

대구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악회 활동이다. 2009년에 창립된 산악회는 아직도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연간 12회의 꾸준한 활동과 모임으로 이어진다고. 조 회장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회원들의 단결력은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산악회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행 중 쓰레기를 주워 오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내가 버렸든 아니든 보이는 것은 무조건 주워 오게 된다”면서 “자연을 보호하자, ‘교정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자’라는 의식이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역사회 기여를 토대로 성장·발전해 갈 것”

대구지부의 가장 큰 자량은 ‘사회봉사 활동’과 ‘단결력’이다. 수해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회원들이 20~50명에 이른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마치면 이들은 어김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조 회장은 이 모든 것이 교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회원 간 친목은 교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시키고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내실을 다지면서 ‘출소자 재사회화 지원’, ‘청소년 선도 교육’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금 문제로 인해 출소자들을 돕는 활동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학교와 연계해 준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이 대구지회의 기부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봉사와 단결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교정공무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부디, 현장에 계신 후배님들도 교정직이 가치 있는 직업군이라 믿고 당당하게 근무해 주세요.”

특색 있는 활동과 강한 연대감으로 성장·발전해 가겠다는 조 회장과 대구지부가 대한민국 교정동우회의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본다.



이 모든 활동이 대구지회의 기부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봉사와 단결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교정공무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 교정의 미래 위한 20년만의 도전: APCCA 2025 준비 착착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APCCA 준비기획단

제43회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교정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해당 회의는 지난 1986년과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APCCA 준비기획단이 20년 만에 한창 분주한 분위기다. 그 현장의 열기와 열정을 전한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다양한 매력으로 빛어낸 팀워크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체계적이다. 평소 개인적 영역에 시선을 두고 살다가, 문득 사회적 이슈들로 검색창을 열 때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내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정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오는 11월 회의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APCCA 준비기획단 덕분에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은 그렇게 또 한 번 넓어지는 듯하다.

APCCA 준비기획단은 승영근 단장 아래 회의 진행, 행사장 및 숙박, 문화행사, 전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행사기획팀'과 참가국들과의 대외 협력, 회의 의제 발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책임지는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홍보 사무관을 지낸 승 단장은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의 중심을 잡으며, 업무를 조율하고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리더십을 행사한다. 밝고 유쾌한 성격의 황성원 사무관은 팀의 활력을 책임진다. 뛰어난 추진력으로 행사 기획과 팀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권유진 교감의 몫이다. 게다가 사진, PP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왕세정 교위의 섬세한 감각은 그야말로 화룡점점. 여기에 문길승 교위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과 유머 감각을 겸비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자타공인 '만능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
APCCA 준비기획단



(좌측부터, 직함 생략) 이선주, 권유진, 승영근, 남서령, 왕세정, 이천규, 문길승, 황성원

국제경험이 풍부한 팀원들도 각자의 강점을 십분 발휘한다. 남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선주 교감은 뛰어난 어학 실력으로 회의 준비 및 통역에서 빛을 발한다. 업무의 무게로 사무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면, ‘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한 이천규 교위의 애교 섞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 해군 대위로 전역했다는 남서령 교사의 독특한 관점 역시 준비단에서 없으면 안 될 핵심 요소라고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강점과 매력을 지닌 멤버들로 구성된 APCCA 준비기획단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는 11월에 있을 ‘제43회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PCCA, 교정 과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의 장(場)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 법치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교정본부장들은 1980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APCCA에서는 보통 2~3년간 논의되지 않은 내용 중 당면한 교정 과제 5가지를 채택, 의제로 선정한다. 이는 조정위원이 제출된 과제의 내용을 정리해 상정하면 참가국이 토론을 통해 다음 해 의제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APCCA는 참가국마다 채택 의제에 대한 자국의 교정 현실 및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 내용이 모든 회원국에 효과적인 실증자료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 대표단에 개최국의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또한 APCCA의 매력 중 하나다. 이는 개최국의 시

* 제43회 APCCA 의제 ① 교정행정의 도전과제 및 발전계획 ② 자원과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교정행정 향상 방안 ③ 교정행정의 국제협력 계획·도전과제 및 성과 ④ 시설 내 약자 처우 방안 ⑤ 마약·알코올 및 도박 등 중독문제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

설과 자국의 시설을 비교해 봄으로써 교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영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APCCA는 “교정 분야에서의 상호 학습과 협력을 도모하며, 더 나은 교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의될 수 있다.

제43회 회의 의제 초점은 ‘교정시설 인식 개선’

APCCA의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시스템, 인구학적 조건, 그리고 교정행정과 관련된 교육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접근법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난 42회 홍콩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친화적인 교도소 설계’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국가별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하다. 반면 사

회적 반발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교정시설은 대도시에서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해 승단장은 “직원과 가족의 생활 여건, 수용자 가족의 접근 편의성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면 대도시가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라면서 “이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인정받았기에 지난 42회 회의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주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교정기관이 대도시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은 APCCA 준비기획단에게 신선한 자극이 됐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면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 이번 회의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시설의 입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정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승영근 단장

APC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설된 국제회의입니다. 1980년 2월 25일 홍콩에서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국을 달리하며 지속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1983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부터 참석했으며, 제7차(1986년) 및 제25차(2005년)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교정기관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교정시설 내 ‘약자 처우 문제’,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문제’와 같은 시대적 과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개최될 제43차 APCCA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명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은 교정 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교정부터 한국 문화까지:

국가 이미지 제고

APCCA 준비기획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국격에 맞는 행사 준비’를 목적으로 꾸려진 부서다. 주요 목표는 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첨단 교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을 통

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다. 특히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던 2005년 이래 스마트 교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APCCA 준비기획단은 국방부와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민관학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교정 관련 주요 인사들에게 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교정행정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교정기관 방문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에



게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성과와 비전을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회의 참가자들은 각국 교정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고위직 인사들로 구성된 여론 주도층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문화와 성과를 자연스럽게 알릴 경우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과 홍보 효과는 국제행사의 주요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며,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국가 전반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의는 교정행정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교정 장비 업체 해외 진출 기회 기대

제43회 APCCA는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정본부가 국제회의 운영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교정 관련 국제 네

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송 단장은 “이번 회의에는 25개국에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면서 “참가자들의 소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기간 중 교정 장비 관련 산업체 전시를 열고자 한다”고 귀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PC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0년 홍콩에서 시작된 국제회의이다. 현재 한국·캐나다·호주·일본·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국과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한국 개최는 지난 1986년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교정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중요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42차 홍콩 아시아·태평양 —— 교정본부장 회의 참가기(상)



이선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제42차 아태회의 개요
- III. 홍콩 회의 주요 일정 등
- IV. 의제 발표를 통해 본 각국 교정행정의 공통점과 특수성
- V. 홍콩 교정행정 개요
- VI. 기관 방문
- VII. 시사점

I. 들어가는 말

2025년 제43차 아시아 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이하 아태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기획과 아태회의 준비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제42차 아태회의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한 공유를 하고자 한다.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때 홍콩은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미남미녀 배우들, 가수들, 그리고 여러 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홍콩영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홍콩 스타들이 콘서트 또는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스컴은 들쭉였고 광고판은 그들의 얼굴로 채워졌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고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던 홍콩 스타들의 명성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으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중심은 구룡반도의 작은 섬 홍콩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예전의 홍콩영화와 노래, 배우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홍콩 방문은 여간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약 한 세기가량 이어진 영국 통치로 인해 서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대중문화를 통해 한껏 발산하던 홍콩은 비록 오래된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금융거래의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로서

의 홍콩은 건재하다. 또한, 정치 체제의 커다란 전환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개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했다.



홍콩 중국 반환 행사

우산 혁명

이 글은 홍콩에서 개최된 아태회의에 참가하는 동안 마주하게 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교정행정의 다양한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주최국인 홍콩 교정 행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회의를 통해 깨닫게 된 교정행정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II. 제42차 아태회의 개요

- 아태회의는 1980년 홍콩 교정국장과 호주 범죄학 연구소장 간의 논의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 간 직무 아이디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공동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현재의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83년 회원가입 이후 1986년 제7차 및 2005년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개최 예정인 제43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가 된다.
- 제42차 아태회의는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홍콩 니나 호텔 취엔완 웨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단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희정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및 아태회의 준비 기획단, 교화방송팀 등이 참가하였다.
- 해당 회의에는 총 22개국(개최국 포함) 및 네 개의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회의 프로그램은 교정 현안 관련 의제 발표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분	국가 및 단체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베트남, 홍콩, 마카오
오세아니아	남호주, 서호주, 피지,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인도 아대륙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
국제기구	국제적십자회의(ICRC), 유엔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범죄예방 수용자 처우 연구소(UNAFEI), 유엔 마약과 범죄 사무소(UNODC), 국제 교정 및 감옥 협회(ICPA)

III. 홍콩 회의 주요 일정 등

- 아태회의는 총 5일간의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중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은 교정행정 및 관련 의제 발표와 토론으로, 매년 다섯 개의 의제가 논의 된다.

일자	회의 일정
11. 17.(일)	▶ 참가자 등록 ▶ 재정 위원회 및 관리 이사회 참가
11. 18.(월)	▶ 개회식 ▶ 제1차 업무협의 ▶ 의제 1 교정행정의 도전과 발전계획 발표 ▶ 환영 만찬
11. 19.(화)	▶ 동시 진행 세션 (의제 2, 3, 4, 5 발표 및 토론) ▶ 의제 선정위원회
11. 20.(수)	▶ 사추이 교도소 방문 ▶ 명소 방문 (만불사, 옹핑마을)
11. 21.(목)	▶ 로우 여자 교도소 방문 ▶ 제2차 업무협의 ▶ 폐회식

- 첫 번째 의제는 ‘교정행정의 도전과 발전계획 발표’라는 주제로, 모든 참가국 및 국제기구 등이 해당 연도의 당면과제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전원회의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22개의 참가국 중 21개 국가 및 세 개의 국제기구가 의제 1 발표에 참여하였다.
- 의제 2부터 5까지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으로서 회원국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제42차 회의의 의제 2~5는 전차 대회인 41차 베트남 아

태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진행되는 세션으로 셋째날 오전 의제 2와 의제 3 발표 및 토론, 같은 날 오후 의제 4와 의제 5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42차 아태회의의 의제 및 각 주제별 토론 참가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제	발표
의제 1	• 교정행정 도전과제 및 계획 Challenge and Initiatives in corrections	모든 참가국, 국제기구
의제 2	• 직원훈련, 역량 강화 및 개발: 전문성, 책임감 및 원조적 문화 조성 Training, fostering and developing staff: Ensuring a professional, accountable and supportive culture	홍콩, 마카오, 피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남호주, 중국, 방글라데시
의제 3	• 교도소 내 폭력 감소와 시설 및 지역사회 내 범죄자 관리·교정 교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n aid to reducing prison violence, and to managing and rehabilitating offenders in prison and the community	홍콩, 중국, 피지, 싱가포르
의제 4	•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향상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Working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o improv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홍콩, 중국, 마카오,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의제 5	• 환경친화적 교도소 설계, 건축 및 운영 방안 How to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prison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홍콩,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IV. 의제 발표를 통해 본 각국 교정행정의 공통점과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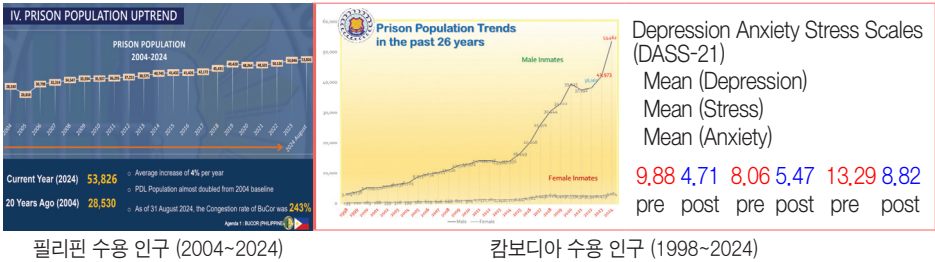
[의제1] 교정행정의 도전과 계획 (Challenges and Initiatives in Corrections)

- 첫 번째 의제와 관련된 각국의 발표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밀 수용, 직원 인력 부족, 약물 범죄 수용자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된 문제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절대적인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① 과밀수용

- 과밀 수용의 경우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발표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필리핀의 수용률은 2024년 현재 243%에 달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1년 사이에 약 27%의 수용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구금 위주 형사정책의 결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구금 위주의 정책을 지역 사회 교정 또는 가석방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과밀 수용 문제는 국가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과밀 수용을 타개하기 위해 재판소요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수용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용자 한 사람당 구금 기간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시설 신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의 인구 유입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태국, 피지 및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었다.

-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는데, 통가, 피지 및 솔로몬 제도와 같은 남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절대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신축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국제사회 및 이웃 국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한 장기적인 시설 개선 및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이웃 국가의 관심과 원조를 호소했다.



② 마약 및 약물 중독 수용자 증가

- 급증하는 마약 및 약물 중독 수용자 문제는 많은 국가가 제시한 주요 당면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의 마약 확산 방지뿐 아니라 증가하는 마약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 및 재활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고민이 주된 논의 소재였다. 대한민국은 마약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교정기관에 마약 재활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회복 이음 등의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현재 전체 수용자의 약 75%가량이 마약 사범인 태국의 경우에는 단순 마약 투약자를 가해자가 아닌 약물 문제의 피해자로 바라보도록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구금을 통한 형 집행 보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중독 치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③ 직원 부족

- 과밀 수용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 일할 직원 부족 문제 또한 여러 국가의 당면과제로 제시되었다. 만성적인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의 경우 로봇 순찰견, 로봇 교도관 등 교정시설 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인력 소모를 대체하고,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검사, 출입자 신원확인 및 수용자 투약 등에 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동 소변 검사기, 즉석 모발 분석기, 안면인식 시스템 및 자동투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직원 부족을 기술의 도입으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 임금 인상 및 격오지 근무자 수당 인상 등의 물질적인 유인책을 통해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원격지 교정시설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

④ 국제기구의 역할

-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홍수, 혹서, 태풍 및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국제적십자회의(ICRC)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약 30개의 국가에서 122건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예측 가능성이 낮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의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한편 재해 유형 및 강도 그리고 재해 발생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 또한 환경 및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가택 구금, 가석방 및 회복적 사법 등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별 국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수용자 처우 극동사무소(UNAFEI)의 경우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 훈련 코스를 개설하여 지역 국가 교정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하였다.

[의제2] 직원훈련, 역량강화 및 개발 : 전문성, 책임감 및 원조적 문화 조성
(Training, Fostering and Developing Staff: Ensuring a Professional, Accountable and Supportive Culture)

- 직원훈련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많은 대표단이 공감하는 주제였다. 각 국가의 행정적 특수성에 따른 중점과제 및 정책은 비록 차이를 보였으나, 직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 역량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교정행정의 효과성 확보와 함께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책임성 향상 등으로 수렴되었다.

- 국가별 직원훈련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직원의 업무 관련 지식을 함양하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전 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이다.

- 전자의 경우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국, 피지 등 여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연수원 및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별, 업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직원 교육뿐 아니라 승진자 및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교정행정 전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모든 직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에게 감독자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직원이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직원 개개인의 지적/업무적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 중국은 직원들의 책임감, 전문기술 및 협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법질서, 범죄학, 교정 이론 및 기술, 실무 운영 등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관련 학과 대학 교수와 연구원, 실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 자원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피지의 경우 신규임용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능력 발달을 위한 보수 교육, 승진자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되고 지속성이 담보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뉴질랜드 및 호주 등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의 교정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비접촉 마약 탐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직원 역량 강화 노력을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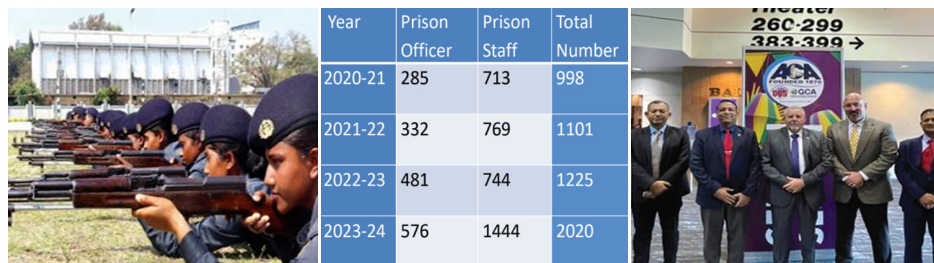


신규직원 훈련

군부대 협력 훈련

직원 해외 연수

- 방글라데시 역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상황에 의해 급진주의 대응 훈련 및 급진주의 수용자에 대한 보안 향상 훈련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무기 사용을 비롯한 군사훈련 및 훈련 교관 교육 프로그램 역시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해외 파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방안 역시 모색하고 있어, 2021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총 33건의 해외 파견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훈련 예시

2020~24 훈련 참여 직원

해외 훈련 프로그램

- 남호주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직원 개개인이 향상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정행정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성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관리자로 승진하여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로를 인정받아 남호주 교정국은 국제 교정 및 감옥협회(ICPA)로부터 우수 표창을 수여 받았다.



여성 관리자

원주민 출신 관리자

ICPA 표창 수상

- 홍콩 및 마카오는 실제 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홍콩은 훈련 결과에 중점을 두고, 대면식 강의 수업, 가상 시나리오 훈련 및 시나리오 훈련이라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대면 수업을 통해 참여 및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2단계 가상훈련에서는 1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한다. 마지막 3단계 교육에서는 1, 2단계에서의 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시설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실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업무의 자신감이 고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단계 대면식 수업

2단계 가상 훈련

3단계 시설 훈련

- 마카오의 경우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비상 상황, 집단 폭동, 폭력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 대응팀을(Tactical Response Unit) 마련하여 이들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폭력사고, 부정 물품 반입과 유통, 자연재해 및 기타 다양한 사고 상황 대처뿐 아니라 고위험 수용자 이송 및 수색, 대형 행사 계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높은 업무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



전술 대응팀 훈련 모습

[의제3] 교도소 내 폭력 감소와 시설 및 지역사회 내 범죄자 관리·교정교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n aid to reducing prison violence, and to managing and rehabilitating offenders in prison and the community)

- 이번 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종류의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였다. 홍콩은 2018년부터 전략적으로 스마트 교정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태블릿을 통한 수용자 교육, 각종 화상 접견 및 화상 진료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순찰 로봇, 드론 순찰 및 비디오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종래 서류작업으로 이뤄지던 시설 내 인수인계 및 각종 민원 업무 등을 태블릿 PC 및 단말기 운용으로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 현황 관련 중요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현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문서 작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 및 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로봇 순찰견

화상 접견

수용자 키오스크

-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통합 보안 시스템(Integrated Security System)에 따라 시설에 대한 외부의 접근 또는 침입, 주벽 방어, 보안관리, 비디오 감시 및 수용자 소요 알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원 소모, 운영 시스템의 복

잡화 등에서 탈피하고자 차량추적, 수용자 위치추적, 비디오 인터컴 및 시청각 분석 기능을 더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출입자의 생체정보 활용, 안면인식 기술 구현,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및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통제실

신체정보 판독기

수용자 키오스크

[의제4]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향상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Working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o improv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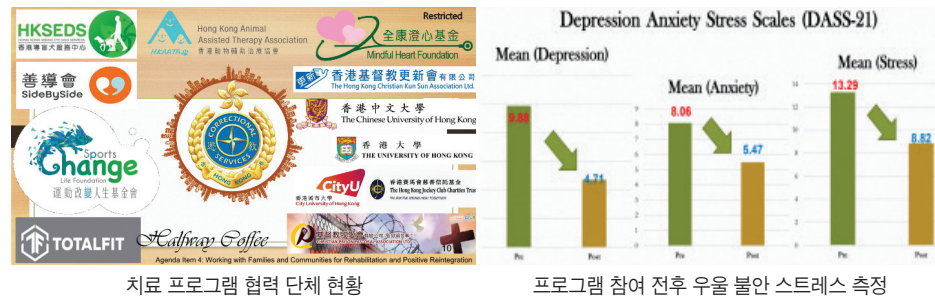
- 교정 교화 및 출소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통합 등을 위한 지역사회, 비정부기구와의 협업이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과거의 구금 위주의 형사 정책에서 탈피하여 회복적 사법 및 지역사회 교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피지와 말레이시아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수용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여 단기적으로는 출소 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및 종교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 주체의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말레이시아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

피지 가족 상담 프로그램

- 시설 내 치유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홍콩에서는 가족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종교단체, 자선 단체 및 동물심리치료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현격한 우울 및 불안도 감소가 확인되어 해당 프로그램들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청소년 단체 및 지역 서비스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높은 재범률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 주거, 보건 서비스 등의 개선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태국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교정 및 명상 프로그램 등을 종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행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교정 교화 및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제5] 환경친화적 교도소 설계, 건축 및 운영 방안

(How to design, construct and operate prison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 환경오염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바탕으로 시설 설계 및 운영에서의 친환경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가에서 시설 자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였다. 중국은 100% 태양광 발전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함께 현재 계획 중인 물 절약 및 냉난방 효율 증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위치적 조건 역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역설하였다. 교정시설을 대도시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



중국 교정시설 전경

함으로써, 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가족의 시설 접근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중교통을 통한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홍콩은 옥상 정원 등이 포함된 그린 빌딩 디자인을 채용하는 한편 조립식 건축법을 이용하여 폐기물과 소음 및 분진에서 자유로운 시설 건립 양식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는 방열 설비 및 자연풍과 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는 시설 구조를 소개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시설 입지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실내 온도 조절 및 지속 가능한 자재를 활용한 시설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태양광을 넘어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까지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선보였다. 또한 빗물이나 하수를 재활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소개하여 장기적인 용수 절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다음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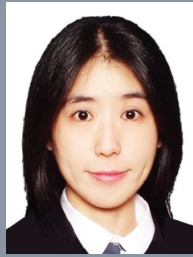


조립식 공법

그린빌딩(옥상 정원)

재활용수 농업 활용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타당화 연구(하)



정여경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중독치료에서 회복단계평가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69명 마약류사범은 남성이 337명, 여성이 32명으로 20대가 48명(13%), 30대가 94명(25.5%), 40대가 94명(25.5%), 50대가 103명(27.9%), 60대 이상이 30명(8.1%)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그 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육수준, 범수, 형기는 표로 제시하였다(표2).

〈표2〉 마약류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상세구분	탐색적 요인분석(명)	%	확인적 요인분석(명)	%
나이	20대	15	16.9	33	11.8
	30대	21	23.6	73	26.1
	40대	24	27.0	70	25.0
	50대	22	24.7	81	28.9
	60대 이상	7	8.5	23	8.2
성별	남	88	98.9	249	88.9
	여	1	1.1	31	11.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2	13.5	32	11.4
	중졸	21	23.6	71	25.4
	고졸	45	50.6	148	52.9
	대졸 이상	11	12.3	29	10.3
범수	초범	31	34.8	78	27.9
	재범	37	41.6	112	40.0
	3범 이상	21	23.6	90	32.1
형기	1년 미만	16	18.0	31	11.1
	1년 이상 1년 6월 미만	20	22.5	60	21.4
	1년 6월 이상 2년 미만	18	20.2	56	20.0
	2년 이상 2년 6월 미만	17	19.1	75	26.8
	2년 6월 이상 3년 미만	4	4.5	24	8.6
	3년 이상	14	15.7	34	12.1

2. 탐색적 요인분석

URICA의 척도가 어떤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 회전은 사교회전방식인 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 누적분산비율이 55~65%가 되는 지점과 스크리 도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KMO(Kaiser-Meyer-Olkin) 수치와 Barlett의 구형성 검증 실시 결과, 본 연구의 KMO 수치는 .82,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χ^2 이 1544.541, df = 276, p < .000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을 넘는 요인은 4개이며 누적분산비율도 4요인 시 60%를 넘어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4요인이 적합해 보였다. 또한 문항 선정 시 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 평가가 필요한 교정시설의 특성 상 24문항 버전을 활용하였으므로, 최종 문항의 선정 시 여러 문항의 탈락으로 원척도가 훼손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적합한 문항 선정을 위해 최소 공통성 수치의 cut-off score로 .25 ~ .40이 제안되므로(Beavers et al., 2013) 공통성 수치를 .35에 맞춰 분석하였으며 그보다 낮은 문항은 없었다. 다음으로 .3 혹은 .4 이하의 낮은 요인적재를 보이는 값을 제거하였는데 이 기준으로 문항7(.37)이 .4보다 낮아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요인적재량이 크게 낮은 편이 아니므로 제거하지 않았다. 표2에 24개 문항의 적재량과 각 요인의 설명량을 제시하였다. 4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66.05%, 1요인이 59.24%, 2요인이 35.69%, 3요인이 47.55%, 4요인이 66.05%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중 원척도와 다르게 묶인 점이 있어 해당 요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전속고 요인 문항1, 5, 7, 16, 19, 22와 숙고 요인 문항 3, 6, 14, 17은 잘 묶였으나, 실행 요인 문항2, 4, 8, 11, 18, 23에 문항10, 20이 같이 섞였다. 문항10, 20은 원척도에서 유지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으나, 문항의 내용에 나타난 회복 유지 행동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원척도의 영어 표현 그대로 유지하고 실행 요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유지 요인이 문항12, 15, 21, 24는 잘 묶였으나 숙고 요인 문항9, 13이 같이 묶였다. 문항9와 13에는 내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와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고자 하는 내면의 강한 욕구가 드러난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중독자들은 대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짐은 이미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독자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유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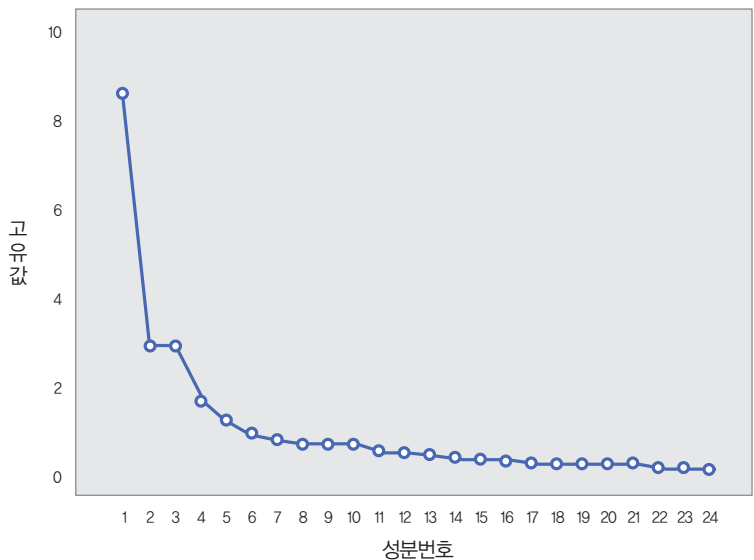
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적인 강인함과 의지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여긴다(유권중, 2013; 전종윤, 2022). 변화에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실천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권과 다른 가치관이다.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여 유지 요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3〉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요인1 전속고(precontemplation)				
1. 나는 마약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63	-.23	-.06	-.18
5. 나는 마약문제와 상관없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이다	.57	-.50	-.19	.18
7. 내게 몇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정말로 변화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37	-.07	-.06	.25
16. 내게 마약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8	.02	-.09	-.32
19. 마약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같은 것은 모두 지루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게 낫다	.79	-.34	-.13	.31
22. 내게 마약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싶지 않다	.70	-.01	-.06	-.16
요인2 숙고(contemplation)				
3. 나는 뭔가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16	.52	.45	-.11
6. 나는 이번 프로그램이 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09	.67	.42	.13
14. 이번 프로그램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다	-.09	.92	.53	.47
17. 나는 누군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18	.65	.41	.14
요인3 실행(action)				
2. 나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06	.39	.80	-.09
4. 가끔 내 마약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4	.42	.67	.04
8. 나는 변화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03	.57	.76	.02
10. 나의 소원처럼 이미 변화를 시작한 내 마약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다	-.15	.59	.81	.33
11. 나는 변화에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48	.95	.17

18. 사람들은 말로만 쉽게 마약을 끊겠다고 한다. 나는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42	.93	.37
20. 나는 마약에 대한 욕구나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13	.49	.88	.33
23. 나는 적극적으로 내 마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4	.23	.73	.06
요인4 유지(maintenance)				
9. 내게는 정말 마약문제가 있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42	.45	.60
12. 나는 일단 마약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마약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10	.30	.41	.70
13. 나의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알면 좋겠다	-.21	.49	.52	.65
15. 마약사용에 대한 나의 변화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격려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15	.38	.33	.66
21.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마약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03	-.01	-.10	.59
24. 나는 마약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매번 또 다시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힌다	.05	-.06	.04	.64
Eigenvalues	3.24	7.38	4.14	4.27
Percent of variance (%)	11.69	35.69	11.86	6.81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	59.24	35.69	47.55	66.05

〈그림2〉스크리 도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표집한 28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도출된 4요인 모형(24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검증에서 TLI, CFI는 .70을 초과하면 수용가능하며 .90에 근접하면 양호한 모형이다(문수백, 2009). RMSEA 적합도는 김수영(2016)은 .05, 김청택(2016)은 .08을 기준으로 보았다. TLI는 .90, CFI는 .92, RMSEA는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4요인 모형을 선정하였다.

〈표4〉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준지표				
χ^2	df	TLI	CFI	RMSEA
4129.170***	228	.90	.92	.07

+p<0.01, *p<0.05, **p<0.01, ***p<0.001

URICA를 해석하는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방법과 총점의 평균을 활용한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수의 인원을 평가해야 하는 교정 환경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큰 표본일 경우 하위 그룹이 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군집분석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모집단 및 여러 표본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roject MATCH Research Group, 1997). 프로파일링 방법은 4단계의 총점수를 활용하는 반면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균을 활용한다.

회복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르면 URICA를 통해 평가된 내담자의 회복단계는 절단점에 따라 해석된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하위 요인점수들의 해석을 돕기 위해, 각 요인들의 총점을 평균으로 전환하여 절단점 표를 제시하였다(표5). 이 표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를 해석할 경우, 대다수가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 내 대다수의 마약류 사범이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마약으로부터 획득한 즐거움과 단약 결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복 실천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

〈표5〉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절단점(cut-off score)

URICA 변환점수		total (N=369)	female (N=32)	male (N=337)
12~14점	preparators into action takers	71	3	68
8~11점	contemplators	225	26	199
7점 이하	precontemplators	73	3	70

4.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3, 전속고 요인은 .82, 속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는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구인타당도

표준화된 개별모수 추정치로 구인 타당도(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line(2011)은 수렴 타당도의 기준으로 표준화된 요인적재 추정치가 .5 이상, 변별 타당도의 기준으로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 .9 이하를 제안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량(AVE)은 .5 이상, 개념신뢰도(C.R.) 값은 .7이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36 ~ .85로,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문항 21(.36), 24(.41)이다.

문항21과 24는 유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묻고 있다. 회복의 변화단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중독자가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과 그 노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의미한다. 치료의 경험이 적고 자발적 회복 동기가 낮은 마약류사범의 경우 이 두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재활경험 후 재발이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그로인해 느끼는 두려움보다 치료에 대한 불신이나 낮은 동기로 인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문항이 유지 요인에 충분히 적재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순환모델로서의 변화단계를 설명하는 필수 요소이므로 문항 21과 24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체 평균분산추출량(AVE) .70, 개념신뢰도 값(C.R.) .98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6〉 문항별 요인적재량 및 요인 간 상관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전속고	→	URICA-DO 1	.55
		URICA-DO 5	.59
		URICA-DO 7	.70
		URICA-DO16	.62
		URICA-DO19	.80
		URICA-DO22	.66
속고	→	URICA-DO 3	.63
		URICA-DO 6	.94
		URICA-DO14	.79
		URICA-DO17	.67
실행	→	URICA-DO 2	.66
		URICA-DO 4	.64
		URICA-DO 8	.51
		URICA-DO10	.53
		URICA-DO11	.74
		URICA-DO18	.78
		URICA-DO20	.85
		URICA-DO23	.60
유지	→	URICA-DO 9	.61
		URICA-DO12	.81
		URICA-DO13	.90
		URICA-DO15	.95
		URICA-DO21	.41
		URICA-DO24	.36
요인 간 상관			
전속고와 속고			-.31**
전속고와 실행			-.16**
전속고와 유지			-.22**
속고와 실행			.68**
속고와 유지			.69**
실행과 유지			.55**

+p<0.01, *p<0.05, **p<0.01, ***p<0.001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타당도 산출식인 평균분산추출량(AVE)과 상관계수의 제곱을 산출하였는데(Fornell & Larker, 1981), 모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아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7〉 각 요인의 변별타당도

요인	C.R.	요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전숙고	.82	.43			
숙고	.85	.09	.59		
실행	.87	.03	.46	.45	
유지	.85	.05	.48	.30	.51

+대각선 성분은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 대각선 아래 성분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2)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는 단약자기효능감 척도,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K-SOCRATES-D), 한국판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DAS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단약자기효능감과 회복단계는 .32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K-SOCRATE-D의 행동실천 요인과는 .50, 인식 요인과는 .57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단약 자기효능감, 변화 준비도에 있어 행동의 실천 정도와 문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우울·불안·스트레스와 회복단계는 -.16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회복단계척도의 4개 요인 중 자기 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숙고 요인과 회복단계는 -.59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전숙고는 나머지 3개 요인과 각각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우울·불안·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8〉 척도 간 동시타당도

	단약효능감	우울불안 스트레스	회복단계 URICA-DO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K-SOCRATES-D		
				행동실천	인식	양가감정
단약효능감	1					
우울불안 스트레스	-.41**	1				
회복단계	.32**	-.16**	1			
URICA-DO	.64**	-.19**	.50**	1		
행동실천	.05	.13*	.57**	.29**	1	
인식	-.20**	.31**	.02	-.05	.33**	1
양가감정						

+p<0.01, *p<0.05, **p<0.01, ***p<0.001

V.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URICA가 마약류사범의 회복단계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비선형적인 회복과정의 진행을 설명하는 변화단계 모델을 소개하면서 마약 중독의 치료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마약류 물질의 강한 중독성 및 마약류사범의 자기통제력 상실, 은폐성과 비자발성 등 특성으로 인해 마약 중독치료가 쉽지 않음에도 변화단계 모델에 따르면 각 회복단계에 대응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순환적인 중독의 회복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치료 과정 중 반복된 재발로 인한 좌절감과 자포자기 및 무기력감 등을 치료자와 내담자가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이 불법으로 처벌되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경로로서 형사사법체계의 비중이 크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마약류사범 수용 후 빠른 개입이 가능하며, 장소와 시간적 제약 없이 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해 전문적 중재가 가능한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치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와 노력은 마약류사범의 범인성 제거 및 치료재활 성과를 동시에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회복과정을 설명하는 변화단계 모델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사범에게 적합한 치료로서 이 치료모델을 통해 마약중독치료 및 재활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표준화된 치료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URICA는 회복단계를 평가하여 변화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 주기에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모델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회복단계가 정확히 측정될 때, 이 모델은 각 회복단계에 필요한 의미 있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 및 치료를 통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DiClemente, Schlundt, & Gemmell, 2004).

미국 표본으로 개발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중독 치료 장면에서 타당화된 URICA를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회복단계의 평가가 치료의 효과성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먼저, URICA의 문항이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게 적절한지 번역 및 감수 과정을 거쳐 24개 문항을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URICA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마약류사범 표본에서 URICA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회복단계는 중독관련 변화단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Prochaska & Diclemente, 1986; Werch, & DiClemente, 1994; Nidecker, DiClemente, Bennett, & Bellack, 2008), 분석 결과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4요인 구조(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원척도와 달리 문항10과 20, 문항9와 13이 다른 요인으로 묶여, 해당 요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하였다. 영어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여 각 문항을 변경된 요인으로 재설정하였으며, 총 24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였고 양호한 적합성을 보여 4요인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로 안정적이었고 하위 요인 또한 .79 ~ .93으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구인 타당도 확인 결과, 문항21과 24 외의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 추정치가 .5이상이며 개념신뢰도(C. R.)가 .7 이상으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문항21과 24는 유지 요인에서 중요한 '치료 이후 재발의 두려움'에 대해 묻고 있다. 치료의 경험이 적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경우가 두 문항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변화단계 모델 설명에 있어 중요한 문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두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요인 간의 변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량(AVE)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평균분산추출량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한 후 확보하였다.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및 다른 약물중독행동 관련 척도들 간의 동시 타당도를 확인한 바,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고위험 마약 사용 상황(즉,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주위 마약남용자들의 압력, 신체적 고통, 마약 사용 중단에 따르는 금단과 갈망 증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단약을 할 수 있다는 신념 및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스스로 마약중독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회복을 위한 준비도 및 행동실천이 증가하였다. 반면 회복단계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자신의 문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복단계가 치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며, 회복단계에 따른 마약류사범의 여러 심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들을 통해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는 4개의 요인, 2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타당화된 도구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의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의 가능성을 재조명했다는 데 있다. 이들을 처벌의 대상 혹은 치료 불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회복이 가능한 대상으로서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회복단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복단계의 평가를 통해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대다수가 숙고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중독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회복 의사결정과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의 개발로 마약류사범의 중독치료 장면에서 치료자는 회복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마약 중독자인 내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담자는 치료의 과정에서 자신의 회복단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변화 동기를 유지함으로써 힘든 치료 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치료 장면에 속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중독치료 장면에 속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적용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수의 내담자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32문항의 URICA 원척도 대신 24문항 버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척도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묶인 문항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추후 요구된다. 셋째, URICA에서 측정하는 회복단계는 각 요인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순환모델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요인 내 문항이 다른 요인에서도 .30이상을 보이는 교차요인적재(Costello & Osborne, 2005)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URICA의 특성을 고려한 교차요인적재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 마약류사범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성의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수의 여성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회복단계를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과정을 개별 마약류사범의 회복 특성에 맞추어 조율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정시설 외 다른 형사사법체계 내 중독치료 장면에 속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형사사법체계 내 중독재활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는 치료자,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성례, (2017), '치료공동체에 거주하는 남성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정', 한국간호과학회지 제47권 제2호, pp.267-276.
-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 김교현, (2007), '중독, 그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4호, pp.677-693.
- 김남희/서정민, (2016),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elberg-Andersen 취약계층행동모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1호, pp.565-599.
-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구축: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 알코올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용진, (1998),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성인약물중독자의 사회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2005),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협동 연구 총서 05-19-0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윤/강지연/임무영/금명자, (2015), '변화단계단계에 따른 알콜 중독 심각도의 차이-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재활심리학회 제22권 제3호, pp. 429-440.
- 김청택, (2016),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제17권 제1호, pp.1-29.
-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성수/김우준, (2010),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4호, pp.348-358.
- 박성수, (2018),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pp.217-254.
- 법무부, (2023), 법무연감.
- 법무부, (2024),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마약류 회복이음'과정 실시, 보도자료.
- 법무부, (2024), 마약류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할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보도자료.
- 신선희, (2022),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9호, pp.712-726.
- 신수경, (2014), '약물용 한국어판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2호, pp.973-985.
- 유권중, (2013), '유교의 마음 모형과 마음 원리', 철학탐구 제34권, pp.1-35.
- 윤현준/임해영/이남경, (2021), '여성 마약중독자의 회복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5권 제1호, pp.99-131.
- 이은현/문승희/조명선/김순영/한진실/최정희, (2019),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척도의 21항목 및 12항목 버전: 한국인의 심리측정 평가', 아시아 간호 연구 제13권 제1호, pp.30-37.
- 전영민, (2005),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평가: 변화단계척도 (SOCRATES) 개발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07-224.
- 전종윤, (2022),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그리고 유교적인 것', 공존의 인간학 제7권, pp.245-286.
- 최미경, (2022), '치료공동체(DARC)에 입소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건강과 복지 제50권 제2호, pp.170-198.

■외국문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ntony, M. M., Bieling, P. J., Cox, B. J., Enns, M. W., & Swinson, R. P. (199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42-item and 21-item versions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in clinical groups and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10(2), pp.176-181.

Bandura, A., & Adams, N. E. (1977). Analysis of self-efficacy theory of behavioral chang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 pp.287-310.

Beavers, A. S., Lounsbury, J. W., Richards, J. K., Huck, S. W., Skolits, G. J., & Esquivel, S. L. (2013).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8(1), p.6.

Brower, K. J., Blow, F. C., Hill, E. M., & Mudd, S. A. (1994). Treatment outcome of alcoholics with and without cocaine disorders, *Alcohol: Clin. Exp. Res*, 18, pp.734-739.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1), p.7.

Dozois, D. J. A., Westra, H. A., Collins, K. A., Fung, T. S., & Garry, J. K. F. (2004). Stages of change in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pp.711-729.

DiClemente, C. C., & Hughes, S. O. (1990). Stages of Change Profiles in Outpatient Alcoholism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2, pp. 217-235.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pp.141-148.

DiClemente, C. C., Schlundt, D., Gemmell, L. (2004). Readiness and stages of change in addiction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3, pp.103-119.

EMCDDA project group. (2014). *INSIGHTS Prison and drugs in Europ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Lisb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Falkin, G. P., Lipton, D. S., & Wexler, H. K. (1992). Drug Treatment in state prisons, in D.R. Gerstein & H.J. Harwood(Eds), *Treating Drug problems* (vol. 2),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Field, C. A., Adinoff, B., Harris, T. R., Ball, S. A., & Carroll, K. M. (2009). Construct, concurr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URICA: Data from two multi-site clinical trial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01(1-2), pp.115-123.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pp.39-50.

Henry, J. D., & Crawford, J. R. (2005). The short-form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Construc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in a large non-clinical samp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2), pp.227-239.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ed.), Spring Street, NY: Guilford publications.

Mander, J., Wittorf, A., Teufel, M., Schlarb, A., Hautzinger, M., Zipfel, S., & Sammet, I. (2012). Patients with depression, somatoform disorders, and eating disorders on the stages of change: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URICA, *Psychotherapy*, 49, pp.519-527.

McConaughy, E. A., Prochaska, J. O., & Velicer, W. F. (1983). Stages of change in psychotherapy: Measurement and sample profil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0(3), pp.368-375.

Miller, W. R., & Tonigan, J. S. (1996).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0, pp.81-89.

Nidecker, M., DiClemente, C. C., Bennett, M. E., & Bellack, A. S. (2008). Applic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Psychometric properties of leading measures in patients with co-occurring drug abuse and severe mental illness, *Addictive Behaviors*, 33(8), pp.1021-1030.

Prochaska, J. O., & DiClemente, C. C. (1983). Stages and processes of self-change of smoking: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pp.390-395.

_____, (1986),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Chang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1, pp.112-124.

Prochaska, J. O., DiClemente, C. C., & Norcross, J. C. (1992). In search of how people change: Applications to addictive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47, pp.1102-1114.

Prochaska, J. O., Velicer, W. F., & Redding, C. (2005). Stage-based expert systems to guide a population of primary care patients to quit smoking, eat healthier, prevent skin cancer, and receive regular mammograms, *Preventive Medicine: An International Journal Devoted to Practice and Theory*, 41, pp.406-416.

ProjectMATCH Research Group. (1997). Matching alcoholism treatments to client heterogeneity: Project MATCH posttreatment drinking outcom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1), pp.7-29.

Sinclair, S. J., Siefert, C. J., Slavin-Mulford, J. M., Stein, M. B., Renna, M., & Blais, M. A. (2012). Psychometric Evaluation and Normative Data for th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s-21 (DASS-21) in a Nonclinical Sample of U.S. Adults,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5(3), pp.259-279.

Sobell, L. C., Sobell, M. B., & Toneatto, T. (1992). Recovery from alcohol problems without treatment. In N. Heather, W. R. Miller, J. E. Greeley (Eds.), *Self-control and the addictive behaviors* (pp.198-242), NY: Maxwell MacMillan.

Tambling, R. R., & Johnson, L. N. (2019). Predictive validity of the R-URICA,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2, pp.407-421.

Trauer, T., Dodd, S., Callaly, T., Campbell, S., & Berk, M. (2005). The validity of the 21-item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as a routine clinical outcome measur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2), pp.227-239.

Tyrer, P. (2023). *Making sense of the ICD-11*,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sner, C. (1992). A comparison of alcohol and drug treatment clients: Are they from the same popu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8, pp.429-444.

Werch, C. E., & DiClemente, C. C. (1994). A multi-component stage model for matching drug prevention strategies and messages to youth stage of use, *Health Education Research*, 9, pp.37-46.

Williams, E. C., Horton, N. J., Samet, J. H., & Saitz, R. (2007). Do brief measures of readiness to change predict alcohol consumption and consequences in primary care patients with unhealthy alcohol use?, *Alcohol: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1(3), pp.428-435.

■기타자료

중앙일보, (2022. 11. 1.),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478#home> (검색일 : 2024. 3. 1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9.),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3/post-35.html#> (검색일 : 2024. 3. 11.).

HOPE REHAB Thailand, (2024), 'What is the Minnesota Model?', <https://www.hope-rehab-center-thailand.com/what-is-the-minnesota-model/> (검색일 : 2024. 3. 18.).

SBS, (2023. 1. 13.), '마약, 사회문제 심각한 수준',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49> (검색일 : 2024. 3. 11.).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이정숙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 IV.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재범방지 대책
-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중독, 범죄, 재범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국경 봉쇄가 강화되기 전까지 2012년 이후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평균 1,300명대를 유지하여 현재 34,121명에 이른다(통일부, 2024. 3월 기준).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적응하기에 북한 독재체제에서 채득한 획일적·폐쇄적 사고와 남한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김윤영, 2017:76), 생활기반의 어려움과 경제적 자립의 부족, 자본주의 체제의 인식 부족 등, 사회적 부적응을 겪고 있다(임창호, 2016:218; 김다은, 2020:1). 또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규범, 2022:168), 특히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피해를 보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최영신, 2015:164; 양양규 외 2021:143).

북한이탈주민이 일으키는 범죄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812명이며, 그 중 마약류 사범이 264명(32.5%)으로 수감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¹⁾ 마약류는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 중 30%를 웃도는 심각한 범죄율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바로 중독성 때문인데,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으로(마약류범죄백서, 2023:129) 30여 년 전 마약류 범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기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중독에 이르게 하는 물질로(Gorski, 1986) 암수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가족과 친구 관계의 파탄, 재정적 문제와 실직, 사고와 부상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하지만(류창현, 2024:38) 단지 이런 개인으로 한정된 범죄만이 아닌 판매와 유통에서 나아가 성범죄, 불법촬영, 살인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박성수, 2018:54 ;박동균·장철영, 2019:71;김재민·이봉한, 2021:281)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 중 특히

자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NIDA, 2024) 마약류 투약자들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위주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박진실, 2017:188).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개인적인 건강의 위험 수준을 넘어 남한 사회에 공중 보건을 비롯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범죄의 실상과 문제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마약류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축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며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여 그에 따른 예방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재범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독

1) 중독의 개념과 용어

중독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 때문에 우리 몸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의미의 중독을 뜻하는 영어단어 ‘intoxication’과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이 외부물질에 의하거나 인터넷, 도박처럼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Addiction’으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Addiction’은 ‘~에 사로 잡히다’, ‘~의 노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dicere’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중독이라는 단어는 관점에 따라 전문적, 사회적, 대중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독의 핵심증상을 영문 이니셜인 ‘3C’로 설명할 수 있다. Compulsive use(강박적 사용), out of Control(조절의 실패), Continuous use despite of bad consequences(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중독의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즉,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규 외,

1) 데일리굿뉴스,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24.02.20.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1.05.10 검색

2018:17). 약물²⁾에 관한 중독용어에는 물질·오용·남용·내성·금단현상과 같은 용어가 쓰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물질(substance)은 뇌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하고, 오용(misuse)은 물질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용량이나 방법을 임의대로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남용(abuse)은 의도적으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물질(substance)을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양을 증가시키는 내성(tolerance),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건디기 어려운 금단현상(withdrawal symptoms)이 있다(Griffith, 2005; 조성권 외, 2007:178; 조근호 외, 2011:16).

2) 중독의 원인과 특성

중독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 따른 주장이 있다. Herrnstein & Prelec(1992)은 중독을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 질병으로 보는 관점 둘째, 합리적 소비자로서 중독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 셋째, 인지하지 못한 채 점차 중독 대상에 빠져들게 되는 ‘유혹이나 타락의 길(primrose path)’로 보는 관점 넷째, 중독을 ‘분열된 자기(divided self)’로 보는 관점이다(박상규 외, 2018:29). 그러나 중독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약물중독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조성권 외, 2007;조근호 외, 2011:57) 해석한다.

(1)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원인은 중독이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reward pathway)라는 부위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기쁨, 보람이나 행복 등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보상회로이다. 이 보상회로에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영향을 미치는데 도파민이 증가하면 쾌감이나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며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약물은 이 보상회로에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순간적인 즐거움을 느낌으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적응(내성)하게 되어 처음 느꼈던 최고치의 쾌감에 다시 도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약물로 인해 보상회로의 민감도는 감소하게

2)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마약류를 ‘drug’으로,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이라는 용어로 번역한다.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는 용어는 마약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약물 이외의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된다. 이처럼 약물사용으로 인해 보상회로가 있는 변연계가 망가지게 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나 심한 우울증, 불안 등을 보이게 된다(Goldman, 1999; 조성남 외, 2021; NIDA, 2024).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며 잠시동안은 현실적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되어 갈등이나 불안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가족의 무관심, 가정폭력, 친구나 동료 관계 부족, 외상 사건 등에 해당한다(류창현, 2024:42). 약물 중독자들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성격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으며,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미숙하고 도덕·윤리적 행동이나 가족 관계 등에서 자기인식이 떨어져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Campbell & Stark, 1990; Wanberg & Milkman, 1998; 박상규, 2002; 조성권 외 2021; 박상규 외, 2018).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쉽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조근호 외, 2011:37).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 약물을 했을 때 보상(쾌락)이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학습되어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보상이 주어지면 더 강화되는 조작적 조건 형성 학습이론(skinner)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조근호 외, 2011:43).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극(S)과 반응(R)의 결과가 보상적일 때 증가하며, 이는 몇 차례만의 경험으로도 신속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미나 외, 2020).

(3)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친구와 동료 간의 마약류 권유와 남용, 사회지원 부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다(류창현, 2024:42). 이런 사회·환경적 요인을 약물사용에 이르게 되는 범죄이론 중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이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사회적 유대의 정도가 강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대의 정도가 약하면 더 많은 일탈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관계 맺을 대상이 매우 부족하고,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유대 정도가 약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김성훈 외, 2015:70). 북한 청년과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겪은 심각한 식량과 경제난으로 가족의 해체에 따른 불안정 애착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약물 남용과 같은 중독에 빠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재환·가요한, 2020:73).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끝났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나 좌절, 부정적 감정 등이 범죄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즉, 긴장이론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문화적 이질감과 괴리에서 비롯된 긴장감이 생긴다. 긴장은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게 되는데, 우울의 경우 약물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긴장은 범죄 성향을 강화한다(대한범죄학회, 2022:190). 또한 경제적 지위가 낮은 도시 빈민들은 부적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마약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부적응은 가족관계와 학교 부적응, 지배 사회와의 적대적인 상호작용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비롯된다(Zinberg, 1978:9)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물론 범죄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여 선택한다고 가정하면서, 범죄실행을 고려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대한범죄학회, 2022:76).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남한 사회의 자유시장 원리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여 처벌의 가능성, 범죄의 비용을 고려한 기대와 보상 측면에서 범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마약류

1)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양을 늘려야 하며(내성), 사용을 중단하면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을 일으키고(금단증상),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한다. 마약(narcotics)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narkotikos)인 ‘무감각’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마약의 주된 작용인 통증을 없애는 데서 기원한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흔히 마약이라고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마약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마약류’는 국제연합에서 정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4).

2) 마약류에 관한 법률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에 하나로 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 관리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으로 마약류를 규제·관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등, 해당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에는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포함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사용한 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외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은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등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에 관한 내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마약류범죄백서, 2022; 법무법인 진실, 2024).

3. 선행연구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식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실태와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론 보도와 연구보고서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마약류 범죄의 실상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윤홍희, 2010; 임창호, 2016; 박성수, 2018; 양양규 외, 2021; 안상원, 2022). 윤홍희(2010)는 하나원 교육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시행하고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알선 시스템의 도입과 남북통합시대의 주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창호(2016)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체성을 고양 시키기, 남한 사회 적응교육의 내실화, 재소자 교육 강화, 여성의 사회화 재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박성수(2018)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와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자원봉사단체를 일원화하여 교정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양양규·김윤영·한상암(2021)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마약류 교과과정의 신설과 심화교육을 해야 하며, 치료보호 프로그램 지원, 신변보호담당관의 마약류 범죄예방 지원을 주장하였다. 안상원(2022)은 하나원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적응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할 때 철저한 검사를 통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주민들과 혼합적 취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인식 전환, 생활밀착형 지원 시행,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이나, 몇 가지 실증연구로서 양옥경 외(2018)는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경험을 가진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하여 마약은 북한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었으나 북한 당국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과 국제사회가 나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근무·유숙경(2021)은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 8명에 대한 마약 사용과 중독 및 밀매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로 정치·사회와 의료·환경, 개인·가족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여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구조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북한 사회에 이미 널리 퍼진 마약류에 노출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남한 사회에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는 신변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식적인 통계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관련 문헌과 기관의 자료, 연구보고서와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와 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련되고자 한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을 과거에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월남자, 자유북한인, 탈북자 등으로 불려왔으며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의미도 다르게

여겨졌다(김윤영, 2017:56). '귀순'은 '스스로 따라 오거나 복종'한다는 뜻을 내포하였고, '탈북자'는 북한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이주한다는 정치적 의미로 북한을 탈출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박영숙, 2013). 한국 정부는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8). 그러나 2004년 통일부는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2005년 '새터민(new settle)'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화전민을 연상케 하여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통일부는 사회적 반대 여론이 심화되면서 2008년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하며, 이후 북한에서 탈출하여 나온 북한 출신을 공식적 명칭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자, 새터민, 탈북 난민 등의 다양한 명칭과 함께 혼용되고 있다(김다은, 2020:12).

2.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국내에 입국하는 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 총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이 되었고, 2016년에는 3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이후 통제가 강화되어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1,100 ~ 1,500여 명을 유지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북·중의 엄격한 국경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으로 2022년 67명까지 급감하였다가 2023년 9월 13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원 수용함을 원칙으로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의해 보호하고 수용하고 있다.

〈표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24년 3월 말 기준)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3 (잠정)	합계
남	302	188	168	202	72	40	35	32	8	9,550
여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35	24,571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43	34,121
여성 비율	78.7%	83.3%	85.2%	80.7%	68.6%	36.5%	47.8%	83.7%	81.4%	72.0%

자료: 통일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1998년 12.2%였으나 2015년에 8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24년 3월 말까지 81.4%에 이르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은 이유는 북한 내에서 남성보다 비교적 이동이 쉬우며, 남성을 세대주로 기준하여 배급제가 시행되었다면,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기가 다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수, 2018:61).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해외에 체류하며 인신매매나 성폭력 등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김윤영, 2017:73).

지역별로 살펴보면 식량 배급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출신이 5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양강도 출신이 16.3%, 함경남도 출신이 9.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세 지역 출신이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3).

2) 연령별 유형

〈표2〉 연령별(입국 시 기준)

(23.9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52	1,707	2,635	2,172	1,406	594	358	9,524
여	646	2,110	6,985	7,585	4,636	1,466	1,000	24,428
합계	1,298	3,817	9,620	9,757	6,042	2,060	1,358	33,952
비율	3.8	11.2	28.3	28.7	17.8	6.1	4.0	100

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3.:10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연령은 20, 30대가 주를 이루며 60%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30 세대를 남한에서 MZ세대로 아울러 이르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장마당 세대’로도 불린다. 심각한 경제난을 보낸 북한의 기성세대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염세적 감정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기성세대의 자녀들인 장마당 세대는 국가의 배급이 아닌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랐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소비 욕구, 다양한 문화³⁾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통일부, 「2023 북한 이해」 234: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233).

3) 탈북 동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동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1995년 이후에는 북한 사회의 ‘고난의 행군’ 시기로 식량난에 따른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배고픔과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생계형 탈북’이 시작되었다(박영숙, 2013:75; 양양규 외, 2021:136).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동기에 대해 ‘식량이 부족해서’가 21.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북한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가 20.4%이며,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와 30대는 ‘북한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40대 이상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1순위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량이 부족해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5).

4) 재북 직업별

〈표3〉 재북 직업별(입국 시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계
남	413	723	4,193	3,218	94	84	241	588	9,524
여	141	163	9,252	11,972	1,463	222	529	686	24,428
합계	554	886	13,445	15,190	1,557	306	770	1,244	33,952
비율	1.6	2.6	39.6	44.7	4.6	0.9	2.3	3.7	100

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3:10

3)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나 20대(64.8%), 30대(59.6%)가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p268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중상층의 배경을 가진 높은 교육수준과 엘리트 계층이었다면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은 무직과 노동자, 농장원과 같은 하위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현황

북한이탈주민 수용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5~180명 사이를 유지하며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812명이다. 입국자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범죄행위는 264명(32.5%)으로 마약류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부터 매년 5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표4〉 북한이탈주민 수용 현황(죄명별)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협박공갈	2	2	4	1	4
강도	4	3	2	3	3
절도	4	7	7	2	2
공안관련	4	4	2	3	3
폭행상해	10	10	9	13	14
과실범	10	6	7	17	12
살인	11	12	17	17	16
강간	16	15	21	20	21
사기횡령	19	16	25	25	23
기타	20	22	19	24	15
마약류	45	55	56	55	53
총계	145	152	169	180	166

자료: 파이낸셜뉴스, 2023. 10. 11

4) 파이낸셜뉴스, “[단독]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2023.10.11 <https://www.fnnews.com/news/202310061646031287>. 2024.05.10 검색

5) 데일리굿뉴스,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24.02.20.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2021.05.10 검색

북한이탈주민 전체 3만 3천 명(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약류 사범은 0.16%를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2022년 마약류 사범 18,395명(2022 마약류범죄백서:102)에 해당하는 비율 0.037%(인구 5천만 명 기준)보다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사범이 4.3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1) 북한 사회에 퍼진 마약류

1980년대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국가로 주목되었던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대의 국가적 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한다. 북한당국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 봉착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마약, 무기밀매, 화폐위조에 가담하였고, 마약의 재배, 생산, 판매 등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박정숙, 2013:1-2). 북한 마약 생산지는 ‘함남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년제약공장’이 있다. 함흥, 평성, 남포, 안주는 북한에서 마약제조업이 제일 발전한 지역인데, 함흥은 북한에서 가장 큰 화학공업 도시로 제약공장과 화학공장 지대이며 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어 화학공업대학, 과학원 함흥분원, 국방과학원 연구사 출신들이 마약제조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 북한 마약의 주 생산지가 되었다(박정숙, 2013:88).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개인으로 마약 생산이 확대되었는데, 2000년 초반 함흥사람들이 각성제인 빙두(필로폰)를 조금씩 제조하여 중국에 판매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며 큰 돈벌이가 되었다. 중국에서도 함흥 빙두는 최고로 여기는데 2002년부터 함북도, 양강도, 평북도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대량의 마약들이 밀수되자 중국 당국은 마약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군을 전 국경에 배치했으며, 중국의 국경통제가 심화되고, ‘봉수호 사건’⁶⁾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게 되자 북한은 자국 내로 판매 방향을 돌려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마약을 소비하는데 이르렀다(최영신 외, 2020:148). 북한 사회의 마약 사용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구조 상황이 되었으며(이관형, 2017:70-71) 북한 사회 내에서 마약이 성행

6)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2003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해안에서 헤로인 150kg을 밀반입한 혐의로 나포되면서 북한이 국제마약 밀매에 개입해 온 정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은 북한 선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북한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하자 결혼식이나 대학입학 선물, 승진 뇌물로도 마약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다(이석영, 2015:80).

2) 대체 의약품으로 마약류 사용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입원환자 식사비, 외래약 값,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병원치료, 식사, 의약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실제로는 주민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 무실해진 상태이다. 게다가 의료시설의 노후화 및 의료진 부족,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의약품을 구해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북한 경제·사회·인식 보고서』, 20241:178-188; 북한정보포털, 2024a). 이처럼 의약품 부족으로 눈병에 걸렸거나 설사를 할 때, 중풍이 올 때 아편을 먹거나 사용하면 통증이 없어지고 바로 낫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박정숙, 2013:92-93).

탈북민 A씨는 “북한은 전문의 보기가 진짜 어렵다. 상급병원에 가려면 의사한테 뇌물을 써야 하니까 마약이 필요하다. 뇌물 쓰는 돈으로 마약 사는 것이 더 싸다”고 증언했다.

이어 “북한에는 양귀비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그걸로 아편 덩어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며 “아편이 이질에 특효약이라고도 하고, 익숙하고 약도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편을 쓴다”고 덧붙였다.⁷⁾

3) 마약류 범죄 인식 부족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경제가 몰락하고 국가 배급시스템의 붕괴로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기아와 생계에 대한 위협을 겪게 되었다. 김정 은도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2021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

7) 연합뉴스, “탈북민 수감자 34%가 마약사범…마약중독 치료 대책 세워야”. 2022.01.13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164600004>. 2024.05.18.검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북한 사회의 식량난은 아직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기 위한 방도로 자연스레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북한정보포털, 2024b). 이러한 배급제의 붕괴로 북한 사회 전반에 부패가 확산되는 계기가 촉발되었고, 그 중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약류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뇌물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특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과정과 불법적인 활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뇌물은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마약류를 밀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당 간부들이나 마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안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전체가 부패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이근무·유숙경, 2021:38). 예를 들어 장마당(종합시장) 단속은 이들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릿세와 뇌물을 받기 위해 빈번하게 행하는 것으로 단속에 걸리면 50만 원 이상 고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2024:112-114). 이렇게 북한의 만연한 부패와 범죄에 대한 둔감함 속에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마약류 문제보다 탈북과 남한 사회의 정착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 범죄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박성수, 2024b).

5년 전 양강도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이정식(38·가명)씨는 “2010년 이후에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빙두를 경험해봤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씨는 “북한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보위부에 끌려가 각서를 쓰거나 현금 얼마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보질 않는다”라고 밝혔다.⁸⁾

4)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구 소득이 1,000만 원~2,000만 원 미만 가구가 17.9%, 1000만 원 미만도 17.0%를 나타내고 있다. 1,000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으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율은 거

8)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진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검색

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착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41).

〈표5〉 지난 1년간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1,000 만 원 미만	1,000 ~2,000 만 원 미만	2,000 ~3,000 만 원 미만	3,000 ~4,000 만 원 미만	4,000 ~5,000 만 원 미만	5,000 만 원 이상	무응답	계	평균 (만 원)
2023년	17.0	17.9	15.3	14.2	8.0	26.5	1.2	100	3,613.4
2021년	16.8	19.9	18.2	13.2	9.0	20.6	2.3	100	3,325.0
3년 미만	39.1	19.7	17.6	11.7	4.3	5.5	2.1	100	1,742.6
3~5년 미만	18.7	27.8	23.3	9.4	5.9	13.6	1.3	100	2,569.6
5~10년 미만	16.9	19.2	16.7	15.4	9.3	21.2	1.3	100	3,156.2
10년 이상	16.5	16.5	14.1	14.3	8.0	29.6	1.1	100	3,871.8

자료: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41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2023 북한 정착실태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창업과 관련된 취업알선이나 취업교육 등을 꼽은 비율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비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18.1%였다(2023 북한 정착실태조사: 37). 실제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내나 아버지, 어머니, 형 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약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고성호, 2010:10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태 지표에서도 일반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으며, 비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표6〉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 비교

(단위: %)

구분	일반국민(A)	북한이탈주민(B)	차이(%p(A)-(B))
경제활동참가율	65.3	63.4	▽1.9
비경제활동참가율	34.7	36.6	△1.9
고용율	63.5	60.5	▽3.0
실업율	2.7	4.5	△1.8

자료: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45

앞글에서 밝힌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는 동기는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이유가 크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북한에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이 무직이나 노동자 계급에서 남한에 온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위협을 더 크게 받게 된다. 이는 결국에 생계형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김성훈 외, 2015:54),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돈과 연관된 범죄에 쉽게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장준오·고성호, 2010:100). 이는 범죄이론 중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빈곤이나 개인적 경제요인이 마약 유통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범죄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마약유통에 손을 대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평양에서 살다

2000년대 중반 북한을 탈출한 김명진(51·가명) 씨 말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100그램이면 1000만 원 가량합니다. 그걸 국내로

운반해주면 통장에 몇 백만 원이 꽂히는데, 돈 쉽게 버는 방법을 안 이상 왜 그걸

안하겠습니까.”⁹⁾

5) 적응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인 독재체제에서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감시와 통제 속에 사상교육과 반공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제3국 등을 경유하며 최소한 3개월에서 수년간 도피와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함, 체포 및 강제송환 되어 사형당할 것에 대한 위협,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성폭력 등의 위협에 의한 심리적 트라우마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영아·이주용·김정규, 2009:218). 특히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인간 뇌에 영향을 미치며, 약물중독과 기타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자기약물치료(self-medication)나 우울, 불안,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류창

9)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검색

현, 2024:39-41).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에서 공안이나 북한 감시자에게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감을 찾는 데 마약류를 사용하며(박성수, 2018:64), 남한 사회에 거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적응하기 어려움에 따른¹⁰⁾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긴장이론(Strain theory)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움에 따르는 긴장은 부정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한 분노,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 차별접촉 등을 겪으며 발생 되고, 이러한 긴장이 부정적 감정이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대한범죄학회, 2022:191).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성남의 한 탈북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이 2~3년간량 소식이 끊겼다면 거의 마약 때문에 형을 살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이들이 설마 마약 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아쉬워했다.¹¹⁾

IV.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재범방지 대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불안정한 도피생활을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한다. 그러나 남한 주민과 사상, 경제적 소득 및 문화, 교육, 법제도 등, 모든 면에서 느끼는 큰 차이와 낮은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한다. 이런 원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깊은 관계가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104). 그 중 북한에서 만연하게 마약류를 비상약으로 사용했던 습관과 마약류 밀매를 통해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법의식 저하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고 마약류 사용 후 재활에 이르기까지 1, 2, 3차 범죄예방 차원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0)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는 비율이 2022년 17.1%에서 2023년 17.7%로 상승하였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율도 2022년 4.3%에서 2023년 4.9%로 상승하였다(북한 정착실태조사 2023)

11)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향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진다. 2022.10.12.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2024.05.18

1. 마약류 교육 필수·확대 실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여 보호결정이 이루어진 후 하나원에 3주 정도 입주하여 총 400시간에 걸쳐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은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총 교육 400시간 중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중독 예방교육(1시간), 준법교육(2시간), 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등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의 1%에 불과하며, 더구나 그마저 담당자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하나원에서 실시한 마약류 교육은 단 2시간에 그치고 있다.¹²⁾ 또한 지역 사회에 편입된 이후에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정숙, 2024:184).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마약류를 상비약으로 습관처럼 사용하였고, 또한 유통하고 판매도 하는 등 범죄의식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보와 적응을 위한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입국 후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마약류 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마약류 교육은 마약류의 중독성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에 관한 내용과 법률 및 처벌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선택적으로 담당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시간을 확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지역에 편입된 이후 지역적응센터에서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 지역적응센터에서 분기별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마약류 예방교육을 제공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교육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사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며, 범죄가 쉽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입장과(이운호, 2022:34)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공중보건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사항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초기 결정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자제력의 장애는 중독의 큰 특징이다(NIDA,

12) 파이낸셜뉴스, “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끼는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2023, 10, 11 <https://www.fnnews.com/news/2023100616460312879> 24.05.13 검색

2024).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변·모발·혈액 검사는 하지 않고 단순 검진이라는 방법만을 사용한다. 단순 검진으로만 중독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이미 중독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파악이 불완전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던 경험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해도 마약류 사용자를 식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어려워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심한 중독자는 선별하여 병원 입원치료를 해야 하지만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마약류 사용자는 그에 적합한 관리를 통해서 마약류 사용을 향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마약관련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런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순 검진의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중독되어 있는지 판단하는데 불충분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독성 검사방법을, 단순 검진의 방법이 아닌,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류 투약 검사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개인정보 강제 획득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논의될 수 있지만,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할 때, 마약류 사용억제를 통해 얻어지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이라는 법익이 더 크고 중요하며 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양양규·김윤영·한상암, 2021:150)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으로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류 투약 검사방법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나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소 마약사범 대상자에게 월 1~2회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게 되면 생체 내에서 대사를 거쳐 소변이나 분변, 피부, 호흡기 등으로 배출되지만 그 중 극히 일부가 신체 조직 일부에 남아 침착하게 되는데, 특히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의 약물은 쉽게 모발에 침착되어 고농도로 남아 있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발은 1개월에 0.8~1.3cm, 평균적으로 1.0cm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모발 약 12cm까지 잘라서 시험하여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발에서 약물 검출은 혐의자가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약 횟수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1회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단, 염색이나 탈색, 파마를 했을 경우에 모발에 침착된 약물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박용훈·한은영·이수연, 2008:459-462). 일반적으로 중독에서 회복되는 기간은 도파민의 활성도가 정상이 되는 일 년 반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조성남 외, 2021:59-60). 그러므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

한이탈주민을 식별하여 기소유예에 준하는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간(24개월) 2~3차례(8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모발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3.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마약의 신체적·정신적 폐해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한에 들어왔다. 더욱이 남한 사회에 언어, 생활방식, 태도, 문화, 자본경제 체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적응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 또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주민들의 차별과 냉대를 경험하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이정숙, 2024:176). 약물의존자들은 기분이 우울하며,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빈약하여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려워 소속 집단의 동료들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조성권 외, 2007:240). 마약 사범의 상당 수는 동료나 주변인의 권유로 처음 마약류를 접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지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구입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도 국내에서 마약류를 중국 및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이탈주민 모임 장소에서 판매와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윤홍희, 2010:111). 마약류 중독은 의존성과 조절이 안 된다는 속성상 혼자 끊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아는 지인이 많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도 부족하다. 마약류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약물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끊고 싶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마약류 초기 치료를 어렵게 하고,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므로 재발(재범)의 비율을 높이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본인의 약물 문제를 부인하거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권 외, 2007:264). 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단약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의료적 치료나 상담을 필요로 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가치관의 재정립, 사회기술훈련,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여 재발의 가능성을 다루고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역에 전입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상담을 통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설(常設)화 해야 하며 의무화해야 한다. 상담 시 비밀보장과 무료지원을 보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지원을 해야 하며,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강제수강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관련 수감자들은 판매책과 알선책, 투약자 모두 같은 방에 수감된다. 이는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단지 가둬두는 것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며, 교정시설의 과밀화 때문이기도 하다. 마약류 사범은 한 곳에 같이 생활함으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또 다른 공급루트를 만들고 소비자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유숙경·이경원·류진선, 2020:144). 또한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약물을 끊었던 것이 아니라 약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것뿐 교도소가 마약을 끊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신태용, 2021:169-170).

2023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는 마약류 수용자 2,169명(2022년 기준) 중 652명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023 교정통계연보:164). 그러한 이유는 수용자들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입식 강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프로그램이 재범방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재소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성수·김우준, 2010:355). 교정시설에서는 또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외 중독치료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실행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되는 마약류 사범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기회도 얻지 못하며,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프로그램의 연계나 관리가 되지 않아 마약류 사범의 특성상 재범으로 이어지게 된다(박진실, 2017:197). 그러므로 수감된 마약류 사범들에게 마약류 중독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는 의무 프로그램에 참여 후 재범률이 감소 되었다는(이승우, 2017:51)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필수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과밀화로 인해 동종 마약류 사범을 한 방에 수감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바 수용자들끼리 정보교환을 막고, 중독프로그램 참여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마약 관리관을 배치해야 한다. 마약 관리관을 통하여 출소 후 상담치료나 재활기관 등 유관기관을 연계받아¹³⁾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감 기간에 단지 약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물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재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심리검사, 직업상담, 자조모임 등,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 NA(단약자조모임)는 온라인모임(ZOOM)을 포함한 1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http://nakorea.org>)

하며 유도하는 것이 출소 후에 재범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5. 직업재활 지원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5년간 특례적용)를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49.7%가 직업교육 훈련을 수료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이 어렵고(26.7%), 적성에 맞지 않다(18.4%)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41-42). 앞에서 살펴 본 <표6>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국 인원의 70% 이상 되는 여성 탈북자의 실업률은 5.1%로 일반 국민 여성 실업률 2.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2023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46).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런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유혹을 받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다 수감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양옥경 외, 2018:264).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은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서 복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직업재활이 필요하다. 마약과 범죄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발생하는데 즉, 빈곤은 사회적 기대를 부과하기 전에 존재의 이해를 요구하는 존재론적 문제가 되어¹⁴⁾ 자존감 및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 직업 재활은 친구나 동료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를 맺는 활동이며,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책임감, 성실성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약 사용자에 대해 기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삶을 개선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Jang. et al., 2023:672; 유숙경 외, 2020:122). 그러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14) Crime, drugs and social theor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2007). Drugs and Alcohol Today, 7(3), 47-48.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crime-drugs-social-theory-phenomenological/docview/213623713/se-2>, 2024.05.14.검색

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재범자들을 위한 직업재활과 취업 지원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며, 실전훈련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직업 재활은 마약류 재범자들의 회복을 돕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IV. 결론

골드스타인(1985)은 약물사용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첫째,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둘째, 마약에 대한 지출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며, 세 번째는 마약 시장의 불법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과 법원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ocan & Corman, 1998). 이러한 약물에 의한 범죄는 형사사법 기관에서 잡히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특성을 가진다.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이 28.57배로 암수범죄율을 마약류 사범의 30배로 산정해야 한다(박성수·백민석, 2019:165)는 연구결과처럼 우리 사회에 마약류 사용자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마약류 중독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붕괴, 인간관계 파탄,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시도,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신태용, 2021:165). 그러므로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국가적 안위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먼저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나원 교육“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과 중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단순 검진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소변·모발·혈액을 통한 마약류 투약 검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강제수강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포용하고 넓게 이해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다은, (2020), '북한이탈주민 사기피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김성훈/최재용/이윤호(2015),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7.1 pp.49-94
- 김소라, (2022), '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례 연구 - 언론보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52, 86-119.
- 김윤영, (2017), '북한당국의 탈북민 재입북 공작 대비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북한학보 42.2 : 53-83.
- 김재민/이봉한, (2021), '범죄학 강의', (주)박영사.
- 김재환/가요한, (2020), '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생리적 관점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 49-96.
-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 대한범죄학회, (2022), '범죄학 개론', (주)박영사.
- 류창현, (2024), '마약중독의 통합적 치료개입의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4(1), 27-65.
- 박동균/장철영, (2019),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3), 67-94
- 박동수, (201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입법정책, 9(1), 1-33.
- 박상규/강성균/김교현/신성만/이형초/전영민, (2018), '중독의 이해와 실제'(2판), (주)하지사
- _____, (2002),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693-703.
- 박성수/김우준, (2010),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348-358.
- _____, (2018),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4 : 53-72.
- _____/백민석, (2019),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 151-170.
- 박영숙, (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71-94.
- 박용훈/한은영/이수연, (2008), '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감정결과의 증거사용에 대해서'약학회지 52.6 : 452-465.
- 박정숙, (2013), '마약범죄의 왕국, 북한', 北韓 -.503: 87-93.
- 박진실, (2017), '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187-220.
- 법무부, (2024), 2023 교정통계연보 법무부·교정본부.
- 신태용, (2021), '마약류중독 콘서트, 신일서적(주).
- 안상원, (2022),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 범죄학회보, 12(2), 19-34.
- 양양규/김윤영/한상암, (2021),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 127-157.
-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2018),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東亞研究』, 37.1: 233-270.
- 유숙경/이경원/류진선, (2020), '남성마약 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생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Colaizzi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접근 -', 교정연구 30.1 pp.117-150 : 117.
- _____, (2021),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1(2), 111-147.
- 윤흥희, (2010),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책', 75- 119.
- 이관형, (2017), '마약에 중독된 북한주민들', 北韓 -.544: 66-73.
- 이규범, (2022),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취약성이 재산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치안 행정논집, 19(3), 159-172
- 이근무/유숙경, (2021),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4), 23-50.

이마나/신재한/김동일/유숙경/김민정, (2020),『중독삼담과 재활』, 정민사.

이석영, (2015), ‘북한은 어떻게 마약천국이 되었나’ 북한, 권, 호, 75-81.

이승우, (2017), ‘교정인권적 측면에서의 출소유형별 교정처우프로그램 효과성 비교연구.’ 인권복지연구 -.19: 23-55.

이윤호, (2022), ‘범죄예방론’, (주)박영사

이정숙, (2024),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8.1 : 163-196.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 (201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총서 2010.0: 1-205.

임창호, (201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시큐리티연구 -.49: 217-246.

_____/김윤영, (2017),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시큐리티연구 -.51 : 221-249.

장준오/이정환, (2006),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11-224.

_____/고성호, (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근호/권도훈/김대진 외, (2011), ‘중독 재활 총론’, 학지사.

조성권, (2007),『마약의 이해』, 한성대학교 출판부, 연구총서 1-13.

조성남/강항숙/김선민 외, (2021),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학지사.

최영관/박성철, (2023),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 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3(3), 1-32.

최영신(2015),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10.3 pp.141-169 : 141

_____/채경희/김대근, (202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교정담론, 4(1), 125-156

최영아/이주용/김정규, (2009),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統一 政策 硏究 18.2 : 215-248.

통일부, (2023), ‘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_____,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도자료

_____, (2024),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 외국문헌

Campbell, B. K., & Stark, M. J. S. (1990). Psvchopatholog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different forms of substance abu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5, 1467-1474

Gorski, T. T., & Miller M. .(1986). Staying sober, CENAPS Corporation.

Griffith, M. D. (2005). A component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10,191-197

Jang Ki Won, Lee Hae Kook, Park Byung-Joo, Kang Hoon-Chul, Lee Sang-Kyu, Kim

Chan-Hyung, Nam Sang Kyu & Roh Daeyoung. (2023).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Toward People With Drug Addiction: A National Survey in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20(7), 671-680.

Marc G, Herbert DK. (1999). Textbook of substance abusetreatment. (2nd ed), American Psychiatric Press

Mocan, H. N., & Corman, H. (1998). An economic analysis of drug use and crime, Journal of Drug Issues, 28(3), 613-629.

Wanberg, K. W. & Milkman, H, B. (1998). Criminal conduc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London: SAGE Publication, Inc

Zinberg, N. E., Harding, W. M., & Apsler, R. (1978). What is drug abuse? Journal of Drug Issues, 8, 9.

■기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데일리굿뉴스, “탈북민 수감자 33%마약사범...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7> (검색일 : 2021. 05. 10.)

법무법인 진실, http://www.jinsillaw.com/bbs/content.php?co_id=sub3_3

북한정보포털, (2024a), 보건·의료정책,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 (검색일: 2024. 05. 18)

북한정보포털, (2024b), 의·식·주,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 (검색일: 2024. 05. 18)

연합뉴스, “탈북민 수감자 34%가 마약사범...마약중독 치료 대책 세워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164600004>. (검색일 : 2024. 05. 18.)

파이낸셜뉴스, “[단독]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끼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https://www.fnnews.com/news/202310061646031287>. (검색일 : 2024. 05. 1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183> (검색일 : 2024. 05. 06.)

KPI뉴스, “[특별기획-마약에 빠진 탈북민①] 생활고·항수병에 시름하는 탈북민, 마약 유혹에 빠지다”,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9017030641> (검색일 : 2024.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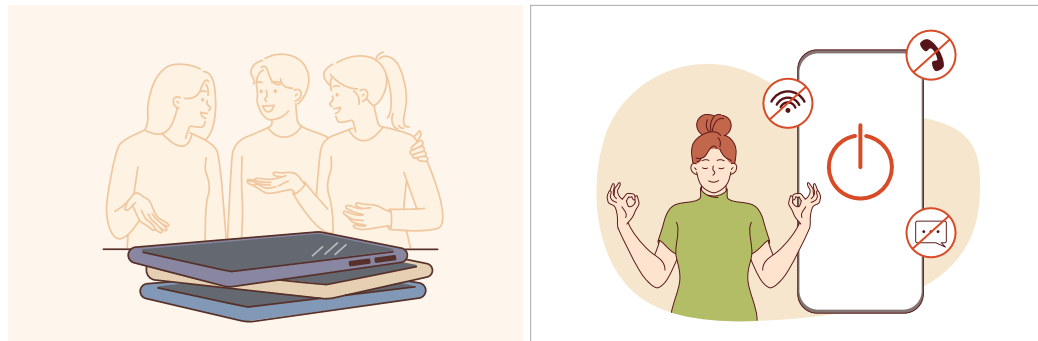
NIDA, <https://nida.nih.gov/publications/drugs-brains-behavior-science-addiction/drugs-brain> (검색일 : 2024. 05. 08.)

2025년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 주요 내용**
-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금지
 - 도주 자살 우려자, 환자 등에 대한 수용관리 강화로 교정사고 사전 예방

접견실 내 전자·통신기기 반입 방지 대책 시달



- 주요 내용**
- 접견실 안내문(경고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 명시
*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입 적발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등 적극 대응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1. 23.(목) 14:00, 법무부 영상회의실(8층)
- 참 석 자**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9명, (내부위원) 교정·보안정책단장
※ 분류심사과장, 교정관 양성필(주제 발표 담당자) 참석
- 주요 내용**
- ‘분류심사를 통한 수형자 재범위험성 관리체계 마련’ 발표 등
 - 회의안건 토의 및 자문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자료 시달



- 주요 내용**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5. 3. 1.부터 시행되는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 각 수용거실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비치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라미 반영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1월 9일 정신·신체질환 수용자 식별 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약물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라미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로써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연계한 건강검진 결과 DB 구축 및 절차가 개선됐으며, 향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관리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보라미봉사단, 2025년 활동 개시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녹화원에서 2025년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보라미봉사단의 시설 주변 환경 정리와 텃밭 일손 돕기 등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수경 교정위원 등 5명의 교정위원과 1월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수형자 4명이 참여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안양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하여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반복되는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헌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설 명절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수원구치소는 지난 1월 15일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실시된 이번 나눔은 ‘동광원’, ‘사랑의 집’, ‘생명의 집’ 등 관내 복지시설 6곳과 결손 가정, 독거노인을 방문해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승진, 전입 신고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승진,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식을 개최했다. 신고식은 ‘전입 직원 임용 신고’, ‘승진 직원 임명장 전수 및 승진 신고’,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신고식 후 기념사진을 받은 직원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되새기며 성실히 근무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김재술 소장 취임

인천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김재술 소장의 취임 소식을 전했다. 김 소장은 부임과 함께 각 과 사무실 순시를 하며 ‘책임감’을 당부하는 한편, ‘화합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수용질서 확립과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수용자에 설맞이 기부금품 지급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1월 22일 수용자들의 따뜻한 설날을 위해 과일과 떡,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및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여)장금상선의 나눔으로 마련됐으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은 총 76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혈액 수급이 위기인 상황 가운데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찾아가는 기관장 신년 인사 행사 진행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소장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신년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학봉 소장은 이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기쁨과 희망은행 협업 취창업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1월 15일~17일 25명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기쁨과 희망은행’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창업 기초 지식 및 금융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과 취업 준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신장내과 초빙진료 협약체결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1월 23일 서울푸른순내과의원과 초빙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관 내 혈액투석 수용자들은 매월 1회 기관을 방문한 서울푸른순내과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서울남부교도소의 의료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춘천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춘천시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립복지원, 마리아의집, 애민보육원 등에 전달된 이번 위문금은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김성호 소장은 이와 관련, “경기참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직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직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

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임용자에게 계급장, 임명장 및 기념선물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조관성 소장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면 한다”면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릉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해 강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상선연마를 노인회, 홍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국가유공자 문화예술진흥원 기관 참관

영월교도소는 지난 1월 8일 ‘국가유공자 문화예술진흥원 기관 참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교도소를 방문한 국가유공자문화예술진흥원장 등 4명에게 기관 현황을 소개하고 구내 시설을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설날맞이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1월 17일 설날을 맞아속초시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가정에 성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 이번 활동은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1월 12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징계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지소 총무계(수용기록)가 주관한 이번 교육을 통해서도 '징계의 개념 및 절차', '유연근무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소망공동체, 새해를 함께 열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전 직원과 수용자가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새해 첫 시무행사 및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식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소망공동체의 설립이념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설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진주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나눔을 진행,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인근 복지시설에 2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2025년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대구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2025년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음주운전이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9급 신규 임용 직원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환영의 인사로 신규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공직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풍산초등학교 졸업생에 표창장 및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지난 1월 7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을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추천받았으며, 풍산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승진 및 전임자 환영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7·8급 승진 및 전임자 환영식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명성 소장은 이와 관련, “우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각 직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협조, 혈액 수급 위기상황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 단체헌혈 감소 우려

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헌혈 기능인구 감소, 수혈인구 증가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 예방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 임용 공무원 1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선호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지난 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울산구치소는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교위 김동갑의 승진임용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지난 1월 8일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된 김동갑 교위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동갑 교위는 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 복귀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설 명절 맞아 사랑나눔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통영구치소 직원 봉사단체 ‘통영사랑나눔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자 실시됐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교정연합회, 불우수용자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불우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1월 2일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한 김중식 사무총장, 박종민 사무차장은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의무관 신규 임용식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지난 1월 14일 의무관 신규 임용식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는 그간 온라인 채용 공고,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 한태한 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용자 건강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23일,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는 박형열 교감이 선정됐으며, 소장·부소장·각 부서의 과장들이 참석해 시상을 축하했다. 박형열 교감은 1991년 부산구치소에 임용된 이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수용자들을 위한 사진 작품 전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사진 작품 2점을 주북도에 전시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이번 작품들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창원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총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350만 원)을 전달했다. 창원교도소는 설과 추석 때마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자위소방대의 임무 숙지, 소방장비 사용법 및 체계적 화재진압 숙달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부산교도소는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동 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하,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포항교도소는 부서 내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지정, 신규 임용 직원들이 원활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밀양시 자원봉사단체로부터 특식 기부받아

밀양구치소는 지난 1월 20일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특식(크리스피 도넛) 600개를 기부받았다. 협의회원들은 이날 "설 연휴 기간에도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도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직원 호신술 교육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1월 6일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소

란 및 난동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용자가 먹살을 잡을 때 이를 제압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2025년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거창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부정 부패와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2025 신년 하례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1월 2일 '2025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목표를 다졌다. 이번 하례식에 참석한 김승만 청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근무하는 것만큼 행복한 직장에 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성세재 활원'에 방문, 설 명절을 맞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윤창식 소장은 이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먼저 살피고 돌보는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보라미 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 실시

청주교도소의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해 12월 16일 '농촌 일손돕

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 및 수용자 14명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의 이번 활동은 청주시 서원구 분령동에 위치한 지역농가에 일손을 보태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교정직 공무원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 진행

천안교도소는 지난 1월 3일 천안신용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정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7·8급 승진임용식 진행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7급 승진자 2명 및 8급 승진자 15명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은 박정민 소장 및 부서별 과장의 축하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박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승진자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실시했다. 임용식은 신규 임용 직원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봉영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규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청렴실천 및 갑질·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충주구치소는 지난 1월 2일 청렴실천 및 갑질·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승소장은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행위이다"면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자체 소방훈련 실시

홍성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훈련 참여자들의 소화기구 작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설 명절맞이 공동생활가정 위문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소장 및 직원들이 모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교정연합회 불우 수용자 지원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설 명절을 앞뒀던 지난 1월 12일 광주청교정연합회(회장 안운봉)로부터 불우수용자를 위한 지원금 500만 원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질병 또는 가족관계 결여 등으로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교정경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광주교도소의 김성관 교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정경찰 우수

은 성금 및 생활품 전달을 위해 성사됐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승진 및 신규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20일 전임 및 승진, 신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교도관 생활을 시작한 3명의 신규직원 및 전임직원, 승진자를 새롭게 맞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재열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교정직 9급 공채 신규 임용식 진행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1월 20일 김영중 등 2명에 대한 신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민현 소장과 각 부서장의 축하 속에 임명장 수여 및 격려품 전달이 이루어졌다. 김영중 교도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며 논산지소와 함께 커가는 직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교위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교도소 마약(원타닐) 반입 사건에 관한 모든 혐의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해 11월경 관련자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교정9급(교도) 신규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교도시보 김성훈 등 5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을 향한 선배 직원들의 축하 가운데 임명장 전수, 계급장 부착식 및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지난 1월 20일 제5회 전국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교정부부 관계직원과 (사)감사나눔연구원 이사장 등 외부인사 15명, 수용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꿈여울 지역아동센터에 방문, 설맞이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목포교도소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목포교도소는 앞으로도 소외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설맞이 보은의 집 방문

군산교도소의 '목정골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월 20일 보은의 집 요양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9년 '목정골 보라미 봉사단'을 창단한 군산교도소는 이후 보육시설과 요양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금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주교도소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반부패 및 청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진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설 명절맞이 기부행사 진행

장흥교도소는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에 계 직원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15일에는 장흥군 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기관인 장흥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인 안양 사랑의 집을 방문했으며, 16일에는 다양한 사정으로 가정미 해체되어 보호-양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쉼터인 탐진그룹홈과 정남진그룹홈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긴급출동 및 도주 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지난 1월 16일 긴급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수용자가 도주하는 상황과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된 이번 훈련은 실제 도주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설맞이 정읍 애육원 방문

정읍교도소는 지난 1월 22일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품 등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시민과 유대 관계 결속 및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범 공무원



수원구치소 | 교감 안창근

지난 2004년 안양교도소에 임용된 안창근 교감은 그간 수용 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전념해 왔다. 안 교감은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월평균 9,400건에 이르는 접견을 총괄하며, 접견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특히 악성 민원과 관련된 전문 고충 상담을 통해 원활한 접견 진행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최신환

최신환 교위는 지난 2023년 4월 현 직급에 임용, 부산교도소 보안4부 중앙통제실에 근무하며 수용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12월 런닝셔츠를 보호실 내 배식구에 연결하여 목에 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전화하는 즉시 달려가 이를 제지했으며, 이후 자해 우려가 있는 해당 수용자의 동정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대전교도소 | 교사 김경은

김경은 교사는 지난 1월 4일 야간 5수용동 근무 중 호흡 곤란 및 의식 저하 상태인 수용자를 발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의료과로 후송 조치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주은

김주은 교도는 '민원봉사실 미술 작품 전시 계획'을 기획·추진하며 기관 이미지 제고와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김 교도는 한은혜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미술 작품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받은 작품을 민원봉사실 대기실, 접견호실, 접견 연출 통로 등 수용자가 출입하는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제25차 APCCA를 개최했던 2005년 이래
우리나라는 교정행정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적용된 이 분야는 무엇일까?

힌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정행정에 도입된 디지털 기반의 교정
시스템을 말한다.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인 □ E □ □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Korea Grand Sale

2025.1.15~2.28

Your
Colorful Stories
in Korea

